

NOT.N
국어 N제

효율적인 양치기를 통한
실전 감각 향상

NOT.N

독서 51제 + 문학 23제
= 총 74제

머리말

2026학년도 수능을 정말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제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독서 및 문학 지문과 문제들 중 1/3 정도를 엄선하고 한곳에 모아 콘텐츠가 부족하신 분들께 제공 해드리고자 국어 N제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N제라고 하기엔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모쪼록 잘 활용하시어 수능때 좋은 결과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서 행위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정보 전달의 매개’와 ‘의미 구성의 사건’이라는 두 관점 사이에서 전개되어 왔다. 전자는 독서를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재현하는 활동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에서 텍스트는 완결된 의미를 담지한 매체이며, 독자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다. 따라서 바람직한 독서란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에 담긴 객관적 의미’를 가능한 한 왜곡 없이 파악하는 것이다. 고전 교육의 다수는 이러한 관점에 기초해, 정해진 의미에 도달하는 것을 독서 성취의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후자의 관점은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독자가 가진 배경지식·경험·가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다고 본다. 즉, 독서란 일방적 ‘전달’이 아니라 쌍방향적 ‘구성’이다. 동일한 작품이라도 독자 집단의 성격, 시대적 상황,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은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며, 텍스트를 해석적·개방적 장(場)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의미 구성의 자율성을 강조할 경우,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 자체의 구조가 무시될 위험이 있다. 저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삭제된다면, 독서는 단순히 독자의 주관적 투사로 환원될 수 있다. 반대로 텍스트 의미의 고정성을 강조하면, 독자는 단순한 수신자로 축소되고, 해석의 다양성이 차단된다. 이러한 양극단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최근의 독서 이론에서 두드러진다.

예컨대, ‘수평 융합’이라는 해석학적 개념은 독서가 독자의 지평과 텍스트의 지평이 상호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독자는 텍스트에 자신의 맥락을 투사하되, 동시에 텍스트가 지닌 낯섦과 저항을 통해 자기 이해를 변형시킨다. 또, ‘텍스트 지향성’을 강조하는 비평 이론은 텍스트가 독자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동시에, 해석을 촉발하는 구조적 장치를 내포한다고 본다. 결국 독서는 독자와 텍스트, 저자의 세계가 긴장과 상호작용을 이루며 의미를 산출하는 역동적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서를 ‘정보 전달의 매개’로 보는 관점은 독자를 수동적 존재로 이해하며, 저자의 의도 파악을 독서의 성취로 본다.
- ② 독서를 ‘의미 구성의 사건’으로 보는 관점은 텍스트를 열린 해석의 장으로 보며, 동일한 작품도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가 생성된다고 본다.
- ③ 의미 구성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독자가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 구조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텍스트 의미의 고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독자의 주관적 투사가 배제되는 대신, 해석 다양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가진다.
- ⑤ 최근의 독서 이론은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의미가 긴장과 조율 속에서 산출된다고 본다.

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독자는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기 경험을 반영하되, 동시에 텍스트가 가진 언어적 구조에 제약을 받는다. 텍스트는 독자의 임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무한한 공간이 아니라, 일정한 방향과 맥락을 지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 ① <보기>는 텍스트의 제약과 독자의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윗글의 ‘텍스트 지향성’과 맥락을 같이한다.
- ② <보기>에서 텍스트의 제약은 저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③ 윗글의 ‘수평 융합’ 개념과 달리, <보기>는 텍스트의 구조적 측면을 더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 ④ 윗글에 따르면, <보기>는 해석의 완전한 주관화와 텍스트의 절대적 고정성을 모두 경계하는 입장과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는 독자의 능동성과 텍스트의 저항을 동시에 인정하는 점에서, 독서 행위가 상호작용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3. 다음은 학생 A가 윗글을 읽고 수행한 활동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한 학생 A의 활동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학생 A는 윗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보 기>

㉠ 독서를 단순히 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행위로 보는 관점은 독자를 수동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기록하였다.

㉡ 독자가 자유롭게 의미를 구성한다는 관점이 강조될 경우, 독서는 주관적 투사로 흐를 위험이 있음을 메모하였다.

㉢ ‘수평 융합’ 개념을 적용하여, 자신이 읽은 고전 소설의 의미가 개인적 경험과 대화하며 달라졌던 사례를 떠올렸다.

㉣ 텍스트 지향성은 독자의 맥락을 배제하고, 오직 텍스트의 구조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입장이라고 정리하였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법은 흔히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 체계’로 이해되지만, 그 정당성과 구속력의 근거를 둘러싸고는 다양한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 자연법론은 법의 정당성을 인간 이성 내재한 도덕적 원리에서 찾는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은 단순히 국가 권력이 강제하는 명령이 아니라, 정의·선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때 비로소 ‘진정한 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불의한 법은 법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마땅히 거부될 수 있다. 고전적 자연법론은 이러한 법-도덕의 내적 결합을 강조했으나, 근대 이후에는 도덕 원리를 ‘인간 존엄’이나 ‘보편적 인권’과 같은 규범적 토대로 재구성하는 시도도 이어졌다.

반면, 법실증주의는 법의 정당성을 도덕적 가치와 분리해 파악한다. 법은 권위 있는 제정 절차를 거쳐 성립한 규칙이며, 그 자체로 사회적 사실이다. 법실증주의자에게 중요한 것은 법이 어떻게 제정·집행되었는가지, 그 내용이 정의로운가 하는 문제는 법학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로써 법과 도덕의 엄격한 분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때때로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결함 있는 법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대립은 헌법재판과 같은 실제 법적 절차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한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 자연법론적 입장은 이를 보편적 자유권의 침해로 보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법실증주의적 입장은 해당 법률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내용적 정당성 판단은 입법자의 몫이라고 본다.

최근에는 이 둘을 절충하려는 시도도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하트는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으로 구분했다. 1차 규칙은 개인의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명령(예: 절도 금지), 2차 규칙은 이러한 규칙이 어떻게 제정·변경·해석되는지를 정하는 절차 규칙이다. 하트에 따르면, 법질서의 핵심은 바로 2차 규칙이 법체계를 자기 점검·수정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트 역시 도덕과의 분리를 전제로 했기에, 법실증주의 계열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풀러는 ‘내재적 도덕’을 강조하며 하트를 비판했다. 그는 법이 법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절차적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법은 일반적·공개적·비모순적·실현 가능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법이 비밀리에 제정되거나, 자주 모순적으로 바뀌어 예측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법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실증주의의 법-도덕 분리를 일정 부분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오늘날 법이 직면한 난제는 단순히 “법은 도덕과 분리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국제 인권 규범, 헌법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 속에서 법은 도덕과 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동시에 법은 절차적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본질을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보편적 가치와 법적 안정성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는 과제로 남

아 있다.

4.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자연법론은 법의 정당성을 도덕적 가치 실현 여부에서 찾으며, 불의한 법은 거부될 수 있다고 본다.
- ② 법실증주의는 법과 도덕의 분리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다.
- ③ 하트는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으로 구분하면서, 2차 규칙이 법체계의 자기 점검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 ④ 풀러는 법이 내재적 도덕을 결여하더라도, 적법 절차를 거쳐 제정되면 법으로 기능한다고 본다.
- ⑤ 오늘날 법은 인권 규범과 헌법적 가치 속에서 도덕과의 분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동시에 법적 안정성도 요구된다.

5.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연법론은 ‘법=국가 권력의 명령’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ㄴ. 법실증주의는 불의한 법이라도 정당한 제정 절차를 거쳤다면 법으로 인정한다.
 ㄷ. 하트는 법체계의 자기 수정 가능성을 강조했으나, 법과 도덕은 구분된다고 보았다.
 ㄹ. 풀러는 법이 최소한의 절차적 도덕을 갖추지 못하면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⑤ ㄴ, ㄷ, ㄹ

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의 이해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A: 법실증주의는 도덕과 분리를 강조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와는 무관하다.
 학생 B: 풀러의 내재적 도덕 개념은 법이 법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법실증주의를 일정 부분 비판한다.
 학생 C: 하트의 법 이론은 법적 안정성만을 강조할 뿐, 법체계의 자기 점검 기능을 고려하지 않았다.

- ① A와 C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 ② A와 B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다.
- ③ A와 B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 ④ B와 C의 진술은 모두 적절하다.
- ⑤ B의 진술은 적절하고, A와 C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7. <보기>의 상황을 (가) 자연법론, (나) 법실증주의, (다) 풀리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 국가에서 ‘언론 검열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정부 비판 기사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과도한 형벌을 부과한다. 이 법은 비밀리에 수차례 개정되면서, 국민은 자신이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 ① (가)에서는 이 법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법이 아니라고 본다.
- ② (나)에서는 이 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도덕적 정당성과 무관하게 법으로 인정한다.
- ③ (다)에서는 이 법이 일반성·예측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법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나)와 달리 (다)는 법의 내재적 도덕을 강조하며, 적법 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 ⑤ (가)와 (다)는 모두 도덕적 결함이 법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본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세기 전반, 예술 철학은 ‘예술적 의미’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축에서 갈등했다. 첫째는 형식주의다. 이는 예술 작품의 가치는 외적 참조가 아닌 작품 내부의 형식적 구성, 즉 선·색·리듬·구조와 같은 자율적 요소들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칸딘스키는 색채가 지닌 고유한 정동적 울림과 선의 배치가 곧바로 영적 체험을 환기한다고 주장하며, 재현 없이도 예술적 의미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입장은 음악의 ‘절대음악’ 개념과 긴밀히 연결된다. 한 교향곡이 외부 세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주제의 변주·화성의 전개·리듬의 내적 필연성만으로 청자에게 독립된 의미망을 제공하는 것처럼, 회화나 건축도 자율적 형식의 긴장과 조화로써 독자적 의미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맥락주의다. 이들은 예술을 자율적 형식으로 환원할 수 없다고 본다. 동일한 색채와 구도라도 그것이 15세기 피렌체의 제단화인지, 20세기 아방가르드의 추상화인지에 따라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형식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사회적 제도·작가의 위치·역사적 담론 속에서 해석될 때 비로소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생각을 ‘자율성의 허상’이라 부르며, 작품의 형식조차 사회적 긴장의 매개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미’란 작품 내부가 아니라, 작품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드러난다.

셋째는 해석학적 관점이다. 가다머는 예술을 단순한 형식 분석이나 사회 반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관람자가 속한 언어·전통·역사적 조건이 작품 해석에 필연적으로 개입한다고 주장한다. 즉, 작품의 의미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람자의 지평과 작품이 형성된 지평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동일한 추상화를 동아시아인이 볼 때 전통 산수화의 여백 개념을 연상하고, 서구인이 볼 때 음악적 리듬을 연상하는 것은 지평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의미란 결코 단일하지 않고, 감정적·대화적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해석 속에서 계속 생성된다.

이 세 입장은 상호 배타적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로 예술 해석 과정에서 형식 분석·사회 맥락·해석자의 지평은 상호 얽혀 있다. 예컨대, 피카소의 「게르니카」는 형식적으로 왜곡된 인체와 파편화된 공간이 불협화음을 이루지만, 이를 단지 형식의 긴장으로만 이해한다면 작품이 가진 정치적 비판성은 사라진다. 반대로, 작품을 스페인 내전이라는 맥락에만 환원한다면, 그 복잡한 시각적 구성과 긴장은 간과된다. 나아가 오늘날의 관람자가 이 작품을 경험할 때, 자신의 정치적·윤리적 감수성과 융합된 새로운 의미망이 추가로 생성된다. 이처럼 예술은 ‘형식의 자율성’과 ‘맥락 의존성’, 그리고 ‘해석의 역사성’이라는 세 축의 긴장 속에서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보편성’의 가능성이다. 형식주의는 자율적 형식에서 보편성을 찾고, 맥락주의는 보편성 자체를 의심하며, 해석학은 대화적 지평 융합에서 형성되는 감정적 합의로서의 보편성을 제시한다. 결국 예술 철학의 과제는, 보편성과 상대성이라는 양극단을 넘어서, 형식·맥락·해석이 어떻게 변증법적으로 얽혀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식주의는 작품 내부 요소들의 긴장과 조화를 자율적 의미 생성의 근거로 삼는다.
- ② 맥락주의는 형식이 전혀 의미 형성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③ 해석학은 의미를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해석자의 지평과 작품의 지평의 융합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 ④ 「게르니카」를 형식적 긴장으로만 이해하면, 작품의 정치적 함의가 소거될 수 있음을 글은 지적한다.
- ⑤ 형식주의, 맥락주의, 해석학은 각각 의미의 발생 조건을 달리 보지만, 실제 예술 해석에서는 상호 얽혀 작동한다고 글은 말한다.

9.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형식주의는 의미의 보편성을 문화·역사 맥락에서 찾는다.
 ㄴ. 맥락주의는 동일한 형식도 시대와 제도에 따라 상이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ㄷ. 해석학은 관람자의 전통과 언어가 작품 해석에 필연적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ㄹ. 형식주의는 음악의 절대음악 개념과 연결되어 설명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0. <보기>의 사례를 윗글의 관점에 따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 한 건축 작품은 동일한 구조적 대칭을 지녔지만, 한 사회에서는 ‘신성한 권위의 상징’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미니멀리즘 미학의 구현’으로 해석되었다.

을: 한 연주자가 고전 교향곡을 연주했을 때, 어떤 청자는 화성의 전개에서 내적 긴장을 읽었고, 다른 청자는 전통적 가치에 대한 향수를 경험했다.

- ① 갑에 대해 형식주의는 동일한 대칭 구조가 자율적 의미를 제공한다고 본다.
- ② 갑에 대해 맥락주의는 서로 다른 사회적 제도와 담론이 의미 차이를 만든다고 본다.
- ③ 을에 대해 해석학은 청자의 역사적·문화적 지평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한다고 본다.
- ④ 을에 대해 형식주의는 화성의 내적 전개가 독립적 의미망을 제공한다고 본다.
- ⑤ 갑에 대해 해석학은 사회 제도와 무관하게 의미가 고정된다고 본다.

11. 윗글에 쓰인 ‘반영’의 의미와 맥락상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거울에 얼굴이 선명히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 ② 신제품 가격은 원자재 비용 상승이 반영되어 책정되었다.
- ③ 보고서는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작성되었다.
- ④ 그 시인의 작품에는 시대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 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에 빠짐없이 반영되었다.

[12~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을 ‘행복’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행복을 쾌락이나 감각적 충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성적 능력을 최고의 탁월성에 따라 활동하는 삶으로 이해하였다. 행복은 인간의 본질적 기능인 이성적 활동의 완성과 관련되며, 덕은 그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성품적 상태다.

그는 덕을 ‘중용(中庸)’의 실천에서 찾았다. 중용은 단순한 평균값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이성적 숙고에 의해 선택되는 ‘탁월한 행위 양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서,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 사이에서 실현된다. 중요한 것은 덕이 습관적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도덕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 행위와 공동체적 교육을 통해 내면화된다.

그는 또한 인간을 ‘폴리스적 동물’로 규정했다. 이는 도덕적 덕이 고립된 개인의 차원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통해 비로소 실현된다는 의미다. 법과 제도는 덕을 기르는 교육적 장치로 기능하며, 개인의 행복은 공동체적 선(善)과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개인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분리하지 않고, 윤리와 정치의 긴밀한 연속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현대적 시각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덕의 내용과 범위가 공동체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윤리 원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 시민’ 중심의 덕 개념은 노예·여성·외국인을 배제한 그리스 폴리스의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의 덕 윤리는 인간 행위의 도덕적 의미를 공동체적 삶 속의 습관과 성품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철학적 의의를 가진다.

(나)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과 『도덕 형이상학 기초』에서 도덕의 근거를 공동체적 습관이나 경험적 조건에서 찾지 않고, 이성의 자율성에 두었다. 그는 도덕 법칙을 조건적 명령이 아닌 ‘정언 명령’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적 행위가 아니라, 행위 그 자체가 보편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원리다.

칸트가 제시한 정언 명령의 한 형식은 “네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거짓 약속을 해도 된다’는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으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형식은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인격을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고, 이성적 존재가 스스로 입법하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칸트에게 도덕적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서 비롯된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가지려면 외적 보상이나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오직 ‘의무’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설령 행위가 불운한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이 정언 명령에 합치된다면 도덕적으로 옳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칸트의 도덕 철학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지나치게 형식적·추상적이라는 점,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위 지침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예컨대, 살인자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는 상황에서조차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는 칸트의 입장은 현실적 삶과 괴리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칸트의 윤리학은 도덕의 보편성과 인간 존엄성을 확립한 철학적 토대로서 현대 인권 담론에도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12.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도덕적 행위가 반복된 습관을 통해 내면화된 성품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② (나)는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도덕적 가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가)와 (나) 모두 도덕적 행위의 기준을 공동체의 관습적 규범에 두었다.
- ④ (가)는 공동체적 맥락에서의 덕 형성을 중시하나, (나)는 이성적 자율성에 의한 의무 수행을 강조한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도덕적 행위가 인간 본성을 실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13.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의 내용을 보편적 원리로 제시하기보다, 구체적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을 통해 규정된다고 본다.
 ㄴ. 칸트의 정언 명령은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 준칙의 형태를 띤다.
 ㄷ.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를 행위자의 성향이나 습관보다 의무의식에서 찾았다.
 ㄹ.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정치적 공동체와 밀접히 연결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ㄹ

14.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특정한 덕은 문화와 전통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살인자를 속이는 거짓말조차 보편화 불가능하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모두, 행위가 단순히 외적 보상에 의해 결정될 경우 도덕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법이 개인을 덕스럽게 훈련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⑤ 칸트의 입장에서는 특정 공동체의 전통적 관습이 도덕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14. <보기>의 상황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한 교사가 학생들의 거짓말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사 A는 “거짓말은 상황에 따라 용납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반복적으로 정직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 하였다. 반면 교사 B는 “거짓말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타인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 ① (가)에서는 교사 A의 태도가 옳다고 보지만, (나)는 교사 B의 태도가 정당하다고 본다.
- ② (가)는 교사 B의 입장에 더 가깝고, (나)는 교사 A의 입장에 더 가깝다.
- ③ (가)와 (나) 모두, 거짓말은 상황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에 따라 금지된다고 본다.
- ④ (가)에서는 반복적 습관을 강조하므로 거짓말의 윤리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 ⑤ (나)에서는 결과적으로 신뢰를 해치지 않는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16. <보기>를 읽고, 이를 (가), (나)의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국가는 법으로 ‘시민 모두가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A 시민은 자발적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했으며, B 시민은 법을 어길까 두려워 억지로 참여했다.

- ① (가)에서는 A 시민이 습관적 행위를 통해 덕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 ② (가)에서는 B 시민도 반복적 행위를 통해 결국 덕을 습관화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나)에서는 A 시민의 행위가 진정한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고 본다.
- ④ (나)에서는 B 시민의 행위도 외적 동기에 따른 것이므로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 ⑤ (가)와 (나) 모두, 행위자의 내적 동기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17. 윗글에서 사용된 ‘자율성(自律性)’은 자신이 스스로 보편적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에 따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맥락의 문장은?

- ① 그는 외부 간섭 없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
- ②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억지로 복종하면서도 불만을 감추었다.
- ③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 그대로 따랐다.
- ④ 그는 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마지못해 결정을 내렸다.
- ⑤ 아이들은 부모의 지시에 따라 생활 습관을 길렀다.

[18~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행위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정보 습득’과 ‘미적 향유’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 인지과학과 매체학의 융합 연구에서는 독서를 단순한 수용 활동이 아니라, 매개적 인지 행위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 이는 독자가 텍스트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물리적 형식·기호 체계·매체적 특성이 사고의 구조 자체를 변형한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예컨대, 고대 구술 문화권에서의 ‘칭취 독서’는 의미가 공동체적 상황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 이야기꾼의 억양과 청중의 반응은 텍스트를 고정된 산물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생성·소멸하는 수행적 사건으로 만들었다. 반면, 인쇄 매체의 확산은 텍스트를 물질적으로 고정된 대상으로 만들며, 독자가 사적 공간에서 텍스트를 ‘내면화’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독서는 기억과 사유의 도구로 정착했고, 근대적 ‘개인’ 개념과 맞물려 확산되었다. 따라서 텍스트의 매체적 특성은 단순히 내용 전달의 수단을 넘어, 독서 행위와 사고 양식의 구조를 함께 규정한다.

한편, 인지과학에서는 독서의 효과를 인지 부하라는 개념으로 분석한다.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독자는 의미 단위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를 기존 기억 체계와 결합시킨다. 이때 글자 배열, 문장 길이, 시각적 단서 등 형식적 요소는 단순히 주변적 장식이 아니라, 독자의 작업 기억 용량과 정보 처리 속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예컨대, 동일한 내용이라도 복잡한 문장 구조나 난해한 시각 배치를 지닌 텍스트는 독자의 인지 부하를 증가시켜 이해를 지연시킨다. 따라서 독서는 단순히 내용 해석이 아니라, 형식-인지의 상호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논의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확장하여, 디지털 독서를 새로운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디지털 텍스트는 하이퍼링크, 다중창 인터페이스, 멀티미디어 삽입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독자에게 비선형적 탐색과 다층적 의미망을 열어 주지만, 동시에 주의 분산과 단편적 수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인쇄 텍스트가 심층적 몰입과 연속적 논리를 강화하는 반면, 디지털 텍스트는 맥락 전환을 촉진해 연상적·네트워크적 사고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두고 ‘집중적 읽기’의 쇠퇴로 규정하며 비판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확산적 읽기’라는 새로운

인지 양식의 출현으로 평가한다.

결국 독서 행위는 텍스트 내용뿐 아니라, 그 매체적 조건과 형식적 구조, 그리고 독자의 인지적 처리 과정이 결합된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 교육이나 연구가 단순히 ‘독해력’의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독서의 효과는 언제나 매체적 맥락-형식적 특성-인지적 과정의 삼중적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1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쇄 매체는 텍스트를 고정된 대상으로 만들어 독자가 내면적 사유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 ② 구술 문화권에서의 독서는 텍스트가 공동체 맥락에서 수행적으로 생성되는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 ③ 디지털 독서는 하이퍼링크와 멀티미디어 요소를 통해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몰입을 강화한다고 평가된다.
- ④ 인지과학적 관점에 따르면, 문장의 복잡성과 시각적 배치는 독자의 작업 기억과 이해 속도에 영향을 준다.
- ⑤ 독서 행위는 매체 조건·형식적 구조·인지적 과정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19. <보기>는 한 연구자가 디지털 독서에 관해 제시한 주장이다. 이를 윗글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디지털 독서는 단순히 인쇄 텍스트의 기능을 대체하는 방식일 뿐, 새로운 인지 양식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육은 전통적인 인쇄 독서 능력을 유지·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 ① 적절하다. 윗글에 따르면 디지털 독서는 인쇄 독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전달 방식이 달라질 뿐이다.
- ② 적절하다. 디지털 독서의 특성은 인쇄 독서보다 몰입과 연속성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 ③ 적절하지 않다. 윗글은 디지털 독서가 주의 분산을 초래하면서도 연상적 사고를 자극하는 새로운 인지 양식을 형성한다고 본다.
- ④ 적절하지 않다. 윗글은 인쇄 독서와 디지털 독서가 동일한 인지 부하를 발생시키므로, 차이는 형식적 수준에 불과하다고 본다.
- ⑤ 적절하다. 윗글은 집중적 읽기 능력의 쇠퇴를 부정하며, 디지털 독서는 단지 비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본다.

20. 다음은 학생 A가 읽은 글과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 A의 이해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학생 A: “독서는 본질적으로 내용 해석 행위이므로, 매체적 특성과 형식은 주변적 요인일 뿐이다. 따라서 인쇄와 디지털 독서의 차이는 겉모습의 문제이지, 사고 양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교사: “네가 독서를 ‘내용 해석’으로만 한정하는 점은 지문과 다르다. 하지만 인쇄 독서와 디지털 독서가 각기 다른 인지 양식을 형성한다는 주장에 대한 네 의문은,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라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 ① 학생 A는 지문을 정확히 이해했으며, 교사의 평가는 부적절하다.
- ② 학생 A의 진술은 지문과 어긋나지만, 교사는 학생의 문제 제기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③ 학생 A는 디지털 독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교사는 이를 비판했다.
- ④ 학생 A의 진술과 교사의 평가는 모두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⑤ 학생 A는 지문의 핵심을 잘 반영했으나, 교사는 이를 불필요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사회계약론 전통에서 정의는 개인 간 합의의 산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대 분배 정의론은 단순히 권리의 원초적 보장을 넘어, 제도 설계가 사회적 자원의 분배 구조에 미치는 효과를 문제 삼는다. 롤스는 ‘무지의 베일’ 뒤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이 모든 합리적 개인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성의 기준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핵심은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보장,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으로서 차등 원칙이다. 차등 원칙은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집단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등 원칙은 제도 현실에 적용될 때 여러 난제를 드러낸다. 예컨대 누적적 불이익을 겪어온 집단에게 추가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은 직관적으로 설득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능력·기여를 중시하는 이들에겐 불공정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가장 불리한 집단’을 특정하는 기준 자체가 정치적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하위 계층, 성별·인종적 소수자, 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집단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직은 롤스의 분배 정의론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는 ‘정의로운 상태’란 특정한 분배 패턴을 만족시키는 결과가 아니라,

자원이 이전되는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에 달려 있다고 본다. 즉, 소유권이 정당하게 취득·이전되었다면 그 결과가 설령 극단적 불평등을 낳더라도 정의롭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국가가 분배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자유의 침해’로 간주하며,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경제학적 ‘시장 설계론’은 분배 정의의 실천적 차원에서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시장 설계론은 기존의 자유시장 질서를 ‘주어진 제도적 환경’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원하는 목표를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규칙 체계로 파악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매 메커니즘’이다. 경매 방식(예: 1등 가격 밀봉 입찰 경매, 2등 가격 비크리 경매, 상등식 공개 경매 등)에 따라 동일한 자원이 다른 주체에게 배분될 수 있으며, 각 주체의 전략적 선택도 달라진다. 정부가 경매 규칙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효율성과 형평의 균형이 바뀌는 것이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탄소 배출권, 전파 주파수, 장기 이식 등 시장의 ‘사회적 민감 자원’ 배분에 시장 설계가 직접 도입되고 있다. 탄소 배출권 경매에서, 단순히 최고가 입찰자에게 배분할 경우, 자원이 가장 절실한 기업이 아닌 투기적 자본이 권리를 독점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 설계자는 배분의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참여 자격 제한·가격 상한·패키지 입찰 등 복합 규칙을 마련한다. 이러한 설계는 분배 정의론과 직접 연결된다. 롤스적 관점에서라면 ‘가장 불리한 집단’의 환경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요구될 것이고, 노직적 관점에서라면 절차적 투명성과 자발적 거래의 자유가 우선시될 것이다.

결국, 정의론은 철학적 원리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제도와 정책의 미세한 규칙 설계에 깊숙이 침투한다. 문제는 공정성의 기준이 단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어떤 사회는 ‘최소 수혜자 배려’를, 또 다른 사회는 ‘자율적 선택 존중’을, 혹은 ‘효율적 자원 활용’을 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분배 정의는 고정된 틀로 환원되지 않고, 다차원적 가치 충돌 속에서 조율·재구성되는 동적인 실천 과제라 할 수 있다.

21. 읽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롤스의 차등 원칙은 불평등의 정당화 조건을 ‘최소 수혜자’의 이익 증대 여부에서 찾는다.
- ② 노직은 정의를 결과의 패턴이 아니라 자원의 취득·이전 과정의 정당성에서 찾는다.
- ③ 시장 설계론은 경매 규칙 설정에 따라 동일한 자원이 다른 배분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④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단순 최고가 낙찰제가 투기적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절차적 정당성을 침해한 사례다.
- ⑤ 분배 정의론은 단일한 보편 원리를 제공하지 못하며, 사회마다 상이한 공정성 기준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롤스는 동일한 사회 제도라도 집단별 역사적 경험에 따라 다른 인식이 가능하다고 본다.
 ㄴ. 노직은 불평등한 결과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정의롭다고 본다.
 ㄷ. 시장 설계론은 제도 규칙의 변화가 분배 정의에 실질적 함의를 가짐을 보여준다.
 ㄹ. 탄소 배출권 경매는 효율성만을 고려하므로 형평성은 무관하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3. 윗글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롤스의 관점에서, 특정 제도가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심화한다면 그 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② 노직의 관점에서, 동일한 결과라도 강제적 재분배를 수반한다면 정의롭지 않다.
 ③ 시장 설계론의 관점에서, 제도 규칙이 설계자의 가치 판단을 반영하지 않는 배분은 불가능하다.
 ④ 롤스와 노직의 이론은 모두 '불평등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한다.
 ⑤ 시장 설계론은 법칙적 진리보다는, 사회적 가치 충돌 속에서 변동 불가능한 단일한 공정성 기준을 제시한다.

2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국가에서 '공공 의료 자원'의 배분 방식을 개편하려 한다. 정부는 세 가지 안을 검토 중이다.
 안 A: 응급 환자 우선 배분.
 안 B: 시장 원리에 따라 치료권을 경매에 부쳐 최고가 입찰자에게 배분.
 안 C: 무작위 추첨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

- ① 롤스의 관점에서는 안 A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최우선 보장하므로 정당화되기 쉽다.
 ② 노직의 관점에서는 안 B가 절차적 자유 교환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정당성이 있다.
 ③ 시장 설계론의 관점에서는 안 C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될 수 있다.
 ④ 롤스와 시장 설계론 모두 안 B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약자의 이익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⑤ 해석학적 확장 관점에서, 동일한 안이라도 각 사회의 문화·역사적 맥락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전통적인 고체 물리학에서 전자의 거동은 주로 '밴드 구조'로 설명된다. 밴드 구조는 결정 격자 속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도체·부도체·반도체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단순히 밴드 갭의 존재 여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물질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전자 상태가 결정 격자의 국소적 성질이 아니라, 결정 전체의 전역적 위상(位相) 특성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위상 물질로 불린다.

위상 절연체는 대표적인 예다. 이 물질은 내부는 절연체처럼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표면이나 가장자리에서는 전류가 손실 없이 흐른다. 이는 '시간 반전 대칭성'과 '스핀 궤도 결합'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독특한 양자적 효과다. 전자는 단순한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서 위상을 가지며, 이러한 위상이 서로 다른 밴드 구조 사이에서 비가역적 구분을 만든다. 따라서 외부 잡음이나 불순물에 의한 교란이 있어도 표면 전도 상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현상은 위상수학에서의 '불변량' 개념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커피잔과 도넛은 구멍의 개수가 동일하기에 위상적으로 같은 구조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특정 결정의 전자 밴드가 어떤 위상적 특성을 가지면, 국소적인 변형이나 불순물이 있더라도 그 특성은 보존된다. 따라서 위상 물질의 전도 특성은 기존 물질보다 훨씬 안정적이다.

위상 물질 연구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이를 양자 소자로 응용하는 것이다. 기존 반도체 소자는 전류 흐름이 미세한 불순물이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반면, 위상 물질은 표면 전도 상태가 '위상 보호'에 의해 유지되므로, 에너지 손실이 적고 내구성이 크다. 특히, 위상 초전도체는 마요라나 준입자라는 특이한 양자 상태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는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 잡음에 강한 '내재적 오류 내성'을 제공한다.

그러나 위상 물질의 응용은 단순하지 않다. 첫째, 위상 상태는 특정한 온도·압력·결정 대칭 조건에서만 안정적으로 나타난다. 둘째, 위상 초전도체의 존재는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으나, 실험적으로는 불확정적 증거만이 제시되고 있다. 셋째, 위상적 전도 현상은 본질적으로 양자역학적 간섭 효과에 기반하기에, 대규모집적 회로에서 이를 어떻게 제어할지는 여전히 난제다.

흥미롭게도, 위상 물질은 단순히 전자 소자에 국한되지 않고, 빛이나 소리 같은 다른 파동계로도 확장된다. 광자 위상 절연체나 음향 위상 결정은 파동의 전파 방향을 제약 없이 제어할 수 있게 하며, 이는 비산란 광전 소자나 소음 제어 장치 등으로 응용 가능하다. 즉, 위상 개념은 물리학의 특정 영역을 넘어, '파동과 대칭성의 보편적 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밴드 구조는 전도체와 부도체를 구분하는 데 활용되지만, 위상 절연체는 이 구분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 ② 위상 절연체는 내부의 전도성이 유지되면서, 외부 표면은 절연성을 나타낸다.
- ③ 위상수학적 불변량은 국소적 변형에도 보존되며, 위상 물질의 전도 특성을 이해하는 데 적용된다.
- ④ 위상 초전도체의 마요라나 준입자는 잡음에 내성이 강한 양자 큐비트 후보로 주목받는다.
- ⑤ 위상적 특성은 전자계뿐 아니라 광자·음향계에도 적용되어 새로운 응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2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위상 절연체의 전도 특성은 단순히 전자의 에너지 밴드 구조 변화로만 설명할 수 있다.
- ② 특정 물질이 고온에서만 위상적 특성을 유지한다면, 이는 위상적 안정성이 온도라는 조건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 ③ 위상수학적 불변량이 변형되면, 위상 절연체의 전도 특성은 여전히 보존된다.
- ④ 위상적 특성은 모든 종류의 파동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 매질의 조건과는 무관하다.
- ⑤ 위상 초전도체가 실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은, 위상적 원리가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7. <보기>는 한 연구팀의 실험 사례이다. 이를 윗글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연구팀은 새로운 합금 물질에서 위상 절연체 현상을 관찰했다. 그러나 이 물질은 특정 압력 범위에서만 안정적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를 이용해 잡음에 강한 양자 소자를 제작하려 했지만, 실제 제작 과정에서는 외부 열 잡음과 비대칭적 결함 때문에 안정적 전도가 유지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연구팀은 동일한 수학적 원리를 적용해 빛의 산란을 억제하는 광자 소자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 ① 위상 절연체가 특정 압력에서만 안정적이라는 것은 위상적 특성이 조건 의존적임을 보여준다.
- ② 양자 소자 제작 실패는 위상적 보호가 이상적 조건에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 ③ 위상수학적 원리를 광자 소자에 적용했다는 사실은 위상 개념의 물리학 일반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 ④ 외부 잡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 전도가 유지되지 않은 것은 위상수학적 불변량의 무의미함을 입증한 것이다.
- ⑤ 동일한 위상 원리가 전자계와 광자계 모두에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위상 개념의 보편성이 확인된다.

28. 윗글에서 쓰인 ‘보호(保護)’의 의미와 문맥상 가장 비슷하게 쓰인 것은?

- ① 이 건물은 최신 내진 설계로 지진에도 보호된다.
- ② 그는 법의 보호를 받아 언론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났다.
- ③ 백신 접종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효과적 보호 수단이다.
- ④ 산호초는 외부 충격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자연적 보호 장치를 지닌다.
- ⑤ 그 나라는 전통문화를 세계화 과정 속에서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29~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하버마스는 근대 합리성의 편향을 극복하려는 시도로써, 사회 행위를 도구적 행위와 의사소통 행위로 구분한다. 도구적 행위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계산적 합리성에 기초한다. 반면, 의사소통 행위는 행위자들이 상호 주관적으로 의미를 공유하고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 사회에서 과학·기술·행정 체계가 팽창하면서 도구적 합리성이 과도하게 지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삶의 규범적·의사소통적 기반이 잠식되었다.

그는 언어 행위 이론에 기초하여, 모든 발화는 네 가지 ‘타당성 요구’를 전제한다고 분석했고, 이는 사실적 진술의 진실성, 규범적 발언의 정당성, 화자의 표현에 담긴 진정성, 발화 자체의 명료성이다.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참여자들은 서로의 발화가 이 네 가지 요구를 충족한다고 상호 인정해야 한다. 만약 타당성 요구가 문제제기되면,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의해야 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담론적 합리성을 ‘규범의 정당화’의 토대로 삼는다. 법률이나 제도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를 밟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론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논증을 거쳐 합리적 합의의 산물로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정당성을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담론적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예컨대 다수결로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가 구조적으로 배제된 담론 환경에서 도출되었다면, 그 법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구상은 이상적 조건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사회 현실에는 항상 권력 불균형, 정보 접근의 격차, 담론 참여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의사소통은 권력에 의해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이상적 담화 상황’은 실현 불가능한 규범적 허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버마스는 이에 대해, 이상적 담화 상황은 경험적으로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론 참여자들이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규범적 이상으로 기능한다고 응답한다. 즉, 이는 실현 가능한 경험적 사실이라기보다는 비판적 준거점으로서 사회 제도와 담론 과정을 끊임없이 교정하게 만드는 ‘규범적 가상’이라는 것이

다.

(나) 푸코는 근대적 합리성과 주체 개념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근대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양식을 단순한 ‘주권 권력’으로 보지 않았다. 주권 권력이 군주의 명령과 처벌을 통해 외부에서 작동하는 가시적 억압이라면, 근대 사회에서의 권력은 훨씬 더 미시적이고, 일상적이며, 생산적인 양상으로 개인의 삶 속에 침투한다. 이를 푸코는 ‘규율 권력’이라 명명했다.

규율 권력은 교도소, 군대, 학교, 병원 같은 제도적 장치 속에서 작동하며, ‘감시’와 ‘규범화’라는 두 축을 통해 개인을 형성한다. 푸코의 유명한 분석인 ‘판옵티콘’은 이러한 권력 작동의 모델이다. 판옵티콘은 원형 감옥 구조로,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게 설계된다. 감시자가 실제로 보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자는 항상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규율한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사회 전반은 바로 이 판옵티콘적 권력의 논리에 의해 조직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규범은 의사소통적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권력-지식의 결합에서 발생한다. 즉, 권력은 단순히 억압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생산하고 지식을 체계화함으로써 ‘정상’과 ‘비정상’, ‘합법’과 ‘위법’, ‘건강’과 ‘질병’ 같은 구분을 만들어 낸다. 의학, 정신의학, 범죄학, 성 과학 등의 근대적 학문들은 이러한 구분을 과학적·중립적 사실로 제시하지만, 푸코에게 이는 실은 권력 장치의 산물이다. 따라서 지식은 단순한 인식 체계가 아니라, 권력을 매개로 인간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정치적 기술이 된다.

푸코는 특히 ‘생명 권력’의 개념을 통해, 근대 권력이 개별 주체를 넘어 인구 집단 전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확장되었음을 지적한다. 생명 권력은 출산율, 사망률, 질병 관리, 노동력 재생산 같은 집단적 삶의 조건을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권력이다. 이 권력은 폭력적 억압보다 ‘삶을 돌보고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작동하며, 결과적으로 개인과 집단을 국가적·경제적 목적에 종속시킨다. 푸코는 이러한 생명 권력이 근대 국가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푸코의 관점에서 사회적 담론은 언제나 권력-지식 체계와 긴밀히 얽혀 있으며, 담론 속에서 생성되는 ‘합의’는 결코 권력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근대 사회에서 정신질환의 개념은 단순히 의학적 발견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권력의 필요에 의해 구성된 담론적 산물이다. ‘정상적인 시민’과 ‘비정상적인 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이 요구하는 사회적 질서의 반영인 것이다.

결국 푸코는 하버마스가 상정한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규범적 가설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담론은 언제나 권력의 편재 속에서 조직되며, 발화자의 위치·지식 체계·제도적 장치에 의해 규정된다. 즉, 권력은 단순히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외부적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담론 자체의 조건이자 구성 원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 없는 의사소통’이라는 가정은 공허한 허

상에 불과하다.

2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버마스는 규범의 정당성을 다수결의 결과보다 담론적 합의 여부에서 찾는다.
- ②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상적 담화 상황은 경험적으로 완전히 실현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만 법은 정당성을 획득한다.
- ③ 푸코는 권력이 담론을 생산하며 ‘정상/비정상’의 구분을 만들어 낸다고 본다.
- ④ 푸코는 감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체가 내면화한 자기 규율을 통해 권력이 작동한다고 본다.
- ⑤ 하버마스와 달리 푸코는 담론을 권력의 외부적 교란이 아니라, 권력이 구성하는 장으로 이해한다.

30.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다음 추론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하버마스의 관점에서는 다수결로 제정된 법이라 하더라도 소수자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었다면 정당성을 결여한다.

ㄴ. 푸코의 관점에서는 의학적 담론이 권력의 산물이라면, 질병의 개념 자체가 역사적·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ㄷ. 하버마스의 관점은 현실 사회의 권력 불평등을 반영하는 데 적합하며, 푸코의 관점은 규범적 비판의 준거점을 제시하는 데 유리하다.

ㄹ. 푸코의 관점에 따르면, 권력은 단순한 억압적 기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 기능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31. (가)와 (나)에 대한 비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하버마스는 언어 행위에 내재된 타당성 요구가 보편적으로 작동함을 전제하는 반면, (나)의 푸코는 언어가 권력-지식 체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 ② (가)의 하버마스와 (나)의 푸코 모두 규범적 합의가 권력 외부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가)의 하버마스는 담론이 권력 불평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④ (나)의 푸코는 규범 정당화의 가능성을 권력의 외부에서 찾으며, (가)의 하버마스는 권력에 의해 담론이 구성됨을 강조한다.
- ⑤ (가)의 하버마스와 (나)의 푸코는 모두 사회 제도의 정당성 판단을 다수결 절차에 의존한다고 본다.

32. <보기>는 한 사회에서 벌어진 상황이다. 이를 ‘하버마스’와 ‘푸코’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 국가에서 ‘온라인 여론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특정 발언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 주장한다. 그러나 삭제 기준은 불명확하며, 정부 비판 발언이 집중적으로 삭제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공론장에서 격렬히 논쟁하고 있다.

- ① 하버마스는 이 법이 공론장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논쟁을 거치지 못했다면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본다.
- ② 푸코는 ‘허위 정보’라는 범주 자체가 권력에 의해 구성된 담론적 산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 ③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토론을 통해 삭제 기준을 합리적으로 합의한다면 법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푸코는 시민들의 논쟁이 권력 외부의 자율적 담론 과정에서 전개된다고 본다.
- ⑤ 하버마스와 푸코는 모두 이 법이 권력-지식 장치의 일환임을 인정하며, 정당성을 부정한다.

33. <보기>는 두 연구자의 입장이다. 이를 하버마스와 푸코의 관점에서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연구자 갑: “현대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도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합리적 합의에 기반한다.”

연구자 을: “현대 사회에서 유통되는 과학적 진리나 언론 보도는 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권력이 생산한 담론이다. 따라서 ‘합리적 합의’라는 표현 자체가 권력의 편재성을 은폐한다.”

- ① 하버마스는 갑의 주장을 지지하며, 을의 주장은 이상적 담화 상황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본다.
- ② 푸코는 을의 주장을 지지하며, 갑의 주장은 권력-지식의 작동에 간과한 것으로 본다.
- ③ 하버마스는 갑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을의 주장 역시 비판적 준거로 수용한다.
- ④ 푸코는 을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갑의 주장이 제시하는 규범적 토대 역시 인정한다.
- ⑤ 하버마스와 푸코 모두 갑과 을의 주장을 ‘보완적 관점’으로 평가한다.

34. 밑글의 ‘조건’과 문맥상 가장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건이 되어 형성된다.
- ② 이 실험은 특정 온도가 조건이 되어야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 ③ 계약은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④ 성과 평가 결과는 사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산출된다.
- ⑤ 선수의 재능은 훈련보다 성공의 더 중요한 조건이다.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독서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구성해 가는 능동적 행위이다. 특히 독자가 글의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독서는 복잡한 인지 활동에 속한다. 독자가 글의 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성하느냐는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 배경지식의 활용, 추론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달려 있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일련의 전략을 사용하여 독서를 수행한다. 이러한 전략은 독자의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의식적으로 습득하고 조절할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독자는 글의 제목과 소제목을 활용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예측하고, 단락별 핵심 문장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며,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다시 읽거나 메모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의 활용 여부는 독서의 효율성과 직결된다.

독서 전략의 핵심은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에 맞게 정보를 조직하는 것이다. 글의 구조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문단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어떻게 배치되고 전개되는지를 의미한다. 설명, 비교, 문제 해결, 인과 관계 등의 전개 방식은 각각 특정한 독서 전략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비교 구조의 글에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도식화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독서 과정은 고정된 단계의 연속이 아니라, 수시로 조정되는 순환적 과정이다. 독자는 읽기 전 단계에서 자신의 목표와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예측하고, 읽는 중에는 예측과 실제 정보를 비교하며 내용을 점검한다. 이때 자신의 이해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는 인지 활동을 초인지라고 한다. ㉠ 초인지는 독자가 독서의 전체 흐름을 조망하면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조절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초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독자는 글의 복잡성이나 난해함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이해를 점검하고 보완하면서 독서를 계속해 나간다. 반면 초인지가 미흡한 독자는 자신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적절한 전략을 적용하지 못해 독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독서 능력은 단순한 정보 처리 능력에 그치지 않으며,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조정하는 능력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3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독서 전략은 독자의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 ② 글의 구조에 대한 이해는 독자가 정보를 조직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 ③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 적절한 독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독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초인지는 독자의 배경지식과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인지 과정이다.
- ⑤ 독자는 글을 읽는 중에 자신의 이해 상태를 확인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36. ㉠의 활용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읽기 전에 독서 계획을 세우며 사용할 전략을 미리 정하는 것
- ② 독서 중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읽고 메모하며 내용을 정리하는 것
- ③ 글의 전개 방식이 문제 해결 구조인지 판단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
- ④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 후 이를 자신의 생활과 연결하여 감상을 서술하는 것
- ⑤ 글의 마지막 문장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며 독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

37.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독서 활동 기록]

오늘 읽은 글은 전개 방식이 조금 복잡했다.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문장을 밑줄치고, 앞 문단과 어떤 관계인지 옆에 간단히 표시해 보았다. 그래도 내용이 잘 잡히지 않아서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내가 선택한 전략이 효과적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으며 내 요약이 적절한지 점검했다. 정리를 마친 후에는 이 글에서 사용된 전략을 다른 설명문에서도 활용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 ①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시도는 독서 전략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핵심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은 독서 전략의 일환으로서 정보 조직 방식에 해당한다.
- ③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으며 요약의 적절성을 판단한 것은 초인지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 ④ 선택한 전략의 효과성을 점검한 것은 독서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수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⑤ 글의 전략을 다른 글에 그대로 적용해 보려는 시도는 글의 구조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을 나타낸다.

[38~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 사회의 신분제는 흔히 법적 신분 구분, 예컨대 양반·중인·상민·천인의 사분법적 체제로 단순화되어 설명되지만, 실제 작동 방식은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겉으로 드러난 법률적 구획 이면에는 관습적 실천과 상징적 질서가 중층적으로 결합된 통치 체계가 존재했고, 이는 단지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자신이 속한 위치를 ‘정당한 것’으로 내면화하도록 작동했다. 즉, 신분제는 물리적 억압보다는 정서적 수용을 통해 통치 효과를 극대화한 복합 권력 체제였다.

표면적으로는 상향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위계 질서를 고착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제다. 법적으로는 모든 남성에게 문과 응시 자격이 주어졌지만, 실제 응시 가능성은 경제력과 교육 기회, 지역 기반 등을 전제한 중상층 이상으로 제한되었다. 제도 외적 요소들이 기회 자체를 통제하였기에, 제도는 평등의 외양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불평등을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허위의식의 산물이 아니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이었다. ㉠ 이를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피지배자에게는 가능성이라는 심리적 위안을, 지배자에게는 자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했다.

이러한 환상 구조는 단지 법과 제도로만 구축되지 않았다. 향안, 족보, 서원과 향교 같은 사회 제도는 형식적 장치이자 상징적 장치로 기능했다. 향안은 특정 지역 양반들이 자신들의 사족 지위를 공식화하는 문서였으며, 족보는 혈통 기록이면서도 정치적 권위의 상징 자본으로 작용했다. 족보에 등재되지 못한 인물은 법적으로 양반 신분을 가졌더라도 실질적인 사회적 인정을 받기 어려웠다. 이는 제도의 ‘유효성’이 법적 지위보다 상징적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육 기관 또한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었다. 향교는 국가 이념을 지역 사회에 주입하기 위한 이념적 거점이었고, 서원은 지방 사족들의 정치적 결속과 권력 정당화의 수단이었다. 이들 기관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서, 사회적 위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상징 자본의 생산지였다. 제향, 훈도, 학맥 등은 권위의 체계를 제도적·의례적으로 지속시키는 장치로 작용했다. 이처럼 조선의 신분제는 통치의 외피를 쓴 감정의 교육 시스템이자, 상징 자본의 내면화 과정을 통해 계층 질서를 고착화하는 통치 기술이었다.

(나)

현대 사회이론은 제도를 단순히 법적 규범이나 물리적 구조로 보지 않는다. 제도란 사회 구성원에게 특정한 사고 방식과 감정 반응, 행동 양식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키는 인식의 프레임이며, 이는 물리적 강제 없이도 질서를 유지하게 한다. 즉, 제도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지’, ‘무엇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자’를 사전에 규정짓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그런 점에서 조선 시대 신분제는 전형적인 사회 내면화형 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위계를 외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 구조 안으로 ㉠ 이입시켰다. 피지배 계층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단지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훈련되었다. 이 과정을 **위계의 감정화**라고 부를 수 있다. 위계의 감정화란 신분 질서가 제도적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감정 구조를 통해 작동하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예컨대, 상민이 양반 앞에서 자동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낮은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감정 구조가 내면화된 결과다. 무례하다는 감정, 경외심, 열등감은 사회 질서에 반응하는 감정적 패턴이며, 이는 피지배 계층이 통제를 감정적으로 내면화하게 만든다. 위계는 제도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적 습관의 구조이기도 한 것이다.

이 구조는 언어 속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존댓말, 지칭어, 의례어 같은 언어적 요소는 계층 질서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 질서를 감정적으로 승인하게 만드는 장치다. 억양과 말투는 출신 계층을 식별하는 기호로 작동하며, 특정한 언어 습관은 특정 계층에 ‘어울리는 것’으로 규정된다. 계층은 법적 신분이 아니라 언어와 감정의 구조 안에서 지속된다.

이러한 위계 감정 구조는 혼인과 상속 같은 제도에서도 확인된다. 상류층 간의 결혼은 단지 가문 간 결합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과 상징 자본의 재편이다. 결혼 상대의 계층은 ‘부끄러움’과 ‘자랑스러움’이라는 감정을 수반하며, 신분 하락이나 상승은 감정적 판단을 통해 개인에게 구조화된다. 다시 말해, 사회 질서는 감정의 지도 위에 그려지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 구조가 현대에도 여전히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서열, 직업 지위, 소비 양식, 언어 습관 등은 계층의 재생산 기제로 기능하며, 우리는 여전히 감정을 통해 계층을 인식하고 정당화한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사는가?”라는 질문은 부끄러움과 당연함이라는 감정적 반응 속에서 잠식되고,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계층적 위치를 자발적으로 승인한다.

이처럼 현대 통치는 제도 그 자체보다, 감정 구조를 통해 질서를 재생산한다. 규범은 강제보다 부드럽고, 감정은 억압보다 효과적이다. 통치는 물리적 지배가 아니라, ‘무엇이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감정적 확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조선 시대의 신분제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감정 구조의 차원에서 여전히 현재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3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의 신분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의도적으로 은폐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안정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 ② 제도적 환상은 피지배자에게는 상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지배자에게는 자격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였다.
- ③ 향교와 서원은 교육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의 지식 확산에 기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층 간 장벽은 완화되었다.
- ④ 감정 구조는 신분 질서를 단지 외부 규범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 ⑤ 언어는 신분을 구분하는 기호로 작동하며, 말투나 억양은 계층 인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층 간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감정적 억제를 유도하는 통제 방식이다.
- ② 법적 불평등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출신 성분에 따라 공식적인 신분을 고착시킨다.
- ③ 피지배자에게 실현 가능한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상층 진입을 장려하는 구조다.
- ④ 제도의 불합리함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물리적 강제를 전면화한 통치 전략이다.
- ⑤ 제도 외적 요소를 은폐함으로써 평등한 기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되는 인식 틀이다.

40. **위계의 감정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계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특정 감정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구조화된다.
- ② 계층 질서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상류층만 특정 감정 체계를 공유하도록 설계된다.
- ③ 존댓말, 말투, 억양은 위계의 감정화를 구조화하는 사회적 코드로 기능한다.
- ④ 감정은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여 신분 질서를 스스로 정당화하도록 만든다.
- ⑤ 혼인과 상속은 감정의 차원을 통해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41.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다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느 다큐멘터리는 한 청년이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지 않고, 고시원 생활을 하며 공부를 지속해 결국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를 다룬다. 프로그램은 이를 ‘불가능은 없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하며, 열정과 노력의 가치를 강조한다. 다큐멘터리는 전반적으로 이 청년이 성취한 결과가 개인의 선택과 의지의 산물임을 부각하며, 마찬가지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 ①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 관점에서 보면, 이 다큐멘터리는 상향 이동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환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사례로 해석되겠군.
- ② 계층 질서의 감정 구조화 개념에 따르면, 이 청년의 성공을 ‘감동’이나 ‘자랑’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위계를 정당화하는 정서적 장치일 수 있겠군.
- ③ 피지배 계층이 실제로 상층으로 진입한 사례라면, 이는 구조적 제약이 실질적으로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아야 하겠군.
- ④ 지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서사는 개인의 성공을 과잉 서사화함으로써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겠군.
- ⑤ 이 청년의 노력에 감동하는 감정 자체가 구조적으로 유도된 감정일 수 있으며, 이는 감정 구조가 위계를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겠군.

4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 방송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 사투리와 억양을 사용하는 인물을 ‘촌스럽고 무식한’ 인물로 묘사한다. 해당 인물은 대체로 하급 노동자나 학력이 낮은 배역으로 등장하며, 반대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는 인물은 지식인 혹은 엘리트 집단의 일원으로 설정된다. 시청자들 중 일부는 해당 묘사에 불쾌감을 느끼지만, 대다수는 이를 ‘그냥 재미’라고 받아들인다.

- ① 언어 표현의 차이가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계층의 정서적 승인 과정을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다.
- ② 방송이 특정 억양을 지닌 인물을 하위 계층에 배치하는 것은 의도된 희화화 전략이며, 이는 언어를 통한 위계 형성보다는 오락적 구성의 일환이다.
- ③ 시청자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방송의 설정이 사회적 위계를 내면화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④ 특정 말투에 ‘촌스러움’을 부여하는 연출은 지역성 고정관념의 재현이므로, 지문에서 논의한 계층 구조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 ⑤ 하위 계층 인물에 특정 언어 습관을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실제 현실을 반영한 설정일 수 있으므로, 위계 감정화로 보기 어렵다.

43.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위가 제도로부터 독립되어 개별 주체로 확산된다.
- ② 강제가 사회 전반에 일반화되어 감정적으로 수용된다.
- ③ 제도적 규율이 물리적 장치 없이 작동하게 된다.
- ④ 규범이 문화적 습관으로 전환되어 반복된다.
- ⑤ 외부 질서가 내면의 정서 구조로 전환되어 주체화된다.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언제나 그 한계를 인간 감각의 바깥에서 정의해왔다. 특히 20세기 초, 물리학의 중심 패러다임이 고전역학적 실재론에서 양자역학적 불확정성으로 전환되며, 과학자들은 존재하되 감각으로 직접 포착할 수 없는 대상들을 이해하고 논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요구된 것은 단순한 이론적 상상력의 확장이 아니라, 감지 불가능했던 대상을 가시화할 수 있는 실험 장치의 고안이었으며, 그러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월슨의 ‘구름 상자’였다. 본래는 대기의 구름 생성 원리를 재현하기 위해 고안된 이 장치는, 의도와 달리 이후 입자의 흔적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전환되며 입자물리학의 상징적 도구로 자리잡는다.

구름 상자는 밀폐된 용기 내부에 포화 수증기를 채워두고, 내부 온도나 압력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과포화 상태를 유도한 후, 고속 입자가 통과할 때 생기는 전리 작용을 통해 수증기의 국소적 응결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이때 입자의 경로를 따라 작은 물방울이 연속적으로 응결되어 마치 하늘에 남은 비행운처럼 입자의 운동 경로가 선처럼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측이 불가능했던 입자의 궤적을 간접적으로 가시화하는 방식이다. 즉, 우리는 입자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입자가 수증기라는 매질에 남긴 결과를 보고 있는 셈이며, 이러한 ‘보이는 흔적’은 실체 없는 허상이 아니라, 관측할 수 없는 대상을 해석 가능한 대상으로 전환시킨 증거로 기능한다. 여기서 관찰이란 실체에 대한 직접 지각이 아니라, 현상의 부산물에 대한 간접 해석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이는 과학적 관측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철학적 반성을 요구한다.

구름 상자의 핵심적 작동 원리는 바로 응결이라는 자연 현상이다. 수증기가 응결하여 물방울로 전환되는 이 미시적 전이는 단순한 물리 현상 이상의 함의를 지닌다. 왜냐하면 입자의 존재는 응결을 통해 비로소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시 과학자의 해석을 거쳐 의미화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응결이라는 현상이 실험자가 구성한 물리적 환경—온도, 압력, 습도 등—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과학적 관측이 실험자의 설정에 따라 구성되는 측면을 갖는다는 점을 드러내며, ‘객관적 사실’이라는 과학의 전통적 이상이 실험적 구성이라는 현실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름 상자가 만들어내는 흔적은 자연이 주는 정보가 아니라, 과학자가 구성한 조건 위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그것은 자연 현상과 해석 체계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하나의 물리적 징표라 할 수 있다.

과학의 목적이 단순히 ‘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을 설계하는 데에 있다는 점은 이 장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구름 상자는 관찰자의 의도와 기술적 설정에 따라 입자의 궤적을 선택적으로 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중립적 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재의 인덱스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통역 장치이며, 존재론적 질문을 실험 기술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때 구름 상자가 포착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지

나간 자리에 남은 변화이며, 이는 고전적 관측 개념, 즉 관찰자의 눈 앞에 객체가 놓이고 그것을 그대로 ‘보면 된다’는 인식론을 근본적으로 전복한다. 존재와 인식의 비대칭성, 실체와 흔적의 분리 가능성, 관찰과 구성 사이의 경계 해체 등이 이 장치의 작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특징은 단지 실험물리학의 기술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구름 상자는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인식론적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다. 입자의 존재는 흔적을 통해 추론되며, 이 추론은 다시 이론적 전제와 실험적 조작의 교차 지점에서 이루어진다. 즉, 우리는 ‘입자가 있다’는 명제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입자가 있었던 흔적이 있다’는 근거를 통해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식은 과학이 존재의 실재성보다 그 실재성을 구성하는 증거의 체계에 의해 작동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흔적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해석의 문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과학은 해석 가능성을 전제로 구성된 증거의 체계이지, 순수한 사실의 중립적 수집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구름 상자는 또한 과학의 측정 행위가 대상의 존재 상태를 변형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도 자주 언급된다. 입자가 구름 상자 내부를 통과하면서 남긴 궤적은, 입자와 실험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며, 실험 환경의 구성 방식에 따라 그 흔적의 형태나 지속 시간, 명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과학이 대상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록하는 활동이 아니라, 특정한 구성 조건 속에서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 그 무엇을 보도록 결정하는 작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처럼, 관찰 행위가 대상의 위치나 운동량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과학은 더 이상 ‘중립적 진실의 수집자’가 아니라 ‘실재의 조건을 설계하는 구성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구름 상자는 그러한 구성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보이는 것’이 진실이라기 보다는 ‘보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진실이 되는 역설적 구조를 드러낸다.

결국, 구름 상자는 실험 장치로서뿐만 아니라,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게 만드는 철학적 장치로서도 작용한다. 그것은 과학의 실천이 단지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활동이 아니라, 관측 대상, 관측 방식, 해석 가능성의 삼중 구조 안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며, 과학의 언어가 사물의 복제를 넘어 사물에 대한 의미의 창출임을 증명한다. 따라서 이 장치는 물리학적 유산인 동시에 인식론적 증거이며,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역으로 되묻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든 월슨의 실험은, 실은 과학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구성하는 실천적 선택의 결과였고, 그 흔적은 아직도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응결되고 있다.

4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름 상자는 실체를 직접 지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자에 의한 환경 변화의 흔적을 통해 간접적으로 존재를 파악하게 한다.
- ② 과학자들이 구름 상자를 통해 입자의 존재 자체를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 이론적 전제는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
- ③ 입자의 궤적은 실험자가 구성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관측이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낸다.
- ④ 구름 상자는 입자의 자취를 시각화함으로써 고전적 실재론의 관측 개념을 해체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⑤ 과학에서 관측 대상은 관측 방식과 조건에 의해 구성되며, 이는 해석 가능한 증거 체계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5. 윗글의 ‘구름 상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름 상자는 실험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확대해 보여주는 보조 장치로, 본질적으로 현미경과 같은 계열에 속한다.
- ② 과학적 지식의 구성 과정에서 구름 상자는 자연 현상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게 재현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의 상징이 된다.
- ③ 구름 상자는 존재를 드러내는 자취를 구성 조건 하에 남기는 장치로, 실험자의 해석 틀 없이도 입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구름 상자의 작동 방식은 과학이 구성적 행위라는 점을 드러내며, 과학자가 구성한 실험 조건이 존재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⑤ 입자의 흔적은 실험 환경과 무관하게 자연적 속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구름 상자는 관측의 일관성과 반복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4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이 대상 자체의 성질을 왜곡 없이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말한다.
- ② 관찰 대상의 존재 여부는 실험자의 이론과 무관하게 물리적 기기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 ③ 실험자가 구성한 조건과 장치가 관측 대상의 존재 양상을 결정짓는 구성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 ④ 과학의 목적은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실체를 최대한 정밀하게 포착하는 데 있으므로, 보기 위한 기술의 발전이 핵심 과제로 여겨진다.
- ⑤ 관측 대상의 실재 여부보다는 실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대상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47. <보기>는 구름 상자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한 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논지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어떤 철학자는 구름 상자를 두고, 그것이 물리학 실험 도구이기 이전에 인간 인식의 상징적 은유라고 보았다. 그는 실체를 직접 인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인식은 구름 상자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며, 인간은 그 흔적을 통해 실체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흔적이 자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장치와 맥락 하에서 구성된다는 점이다. 철학자는 과학이 사용하는 ‘관측’이라는 개념 역시 이러한 구름 상자적 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관측은 단지 보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보일 수 있는가’를 구성하는 조건을 포함하며, 과학은 사실상 존재 자체보다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보이게 만드는 조건’이 존재론적 지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현상이 존재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식 구조 속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것은 실재로 인정되지 못한다. 이로부터 그는 “보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극단적 명제를 도출한다. 이러한 입장은 과학이 구성하는 세계와 실제 세계가 불가분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 ① <보기>의 주장은 관측이 구성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윗글의 과학적 인식론과 개념적으로 긴밀히 연결된다.
- ② 철학자가 주장하는 ‘존재의 조건으로서의 인식 가능성’은 윗글의 ‘입자의 흔적을 통한 존재 구성’과 유사한 논리를 공유한다.
- ③ <보기>는 실체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과학적 관측이 보다 정밀한 재현을 목표로 한다고 본다.
- ④ 철학자가 말하는 ‘보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윗글의 ‘실재 추정은 구성된 조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 ⑤ <보기>는 구름 상자를 통해 인간 인식 자체의 구조를 설명하고자 하며, 이는 윗글이 다른 관측의 철학적 성찰과 맥락상 조응한다.

[48~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은 실재를 모사하는 행위인가, 아니면 실재를 구성하는 실천인가. 이 오래된 질문은 미메시스적 전통과 창조적 실천 개념 사이의 긴장을 전제로 한다. 고대 플라톤은 예술을 이데아의 ‘모사’로 보았고, 따라서 실재에서 두 단계 떨어진 ‘그림자의 그림자’로 간주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을 진리로부터 떨어진 허상으로 간주했지만, 근대 이후 예술은 오히려 실재

를 드러내는 방식, 즉 진실에 접근하는 독자적 통로로 재해석되었다. 특히 20세기 이후에는 예술이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새로운 실재를 창출하는 언어적 기호체계’로 이해되며, 실재 개념 자체에 대한 물음을 유발하는 철학적 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시각은 예술을 단순한 모사적 재현이 아니라, 형식의 자율성과 그 형식이 현실을 어떻게 규정짓는가에 대한 탐구로 전환시킨다. 예술의 형식이란 단순히 미적 외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작가와 관람자 사이의 규범적 계약이자, 작품 내부에서 ‘현실’을 만들어내는 구성 규칙이다. 예를 들어 원근법의 적용은 단지 공간을 묘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시지각적 체계를 형성한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설계된 결과’이며, 이때 형식은 실재의 반영이 아니라 실재의 규정 조건이 된다. 따라서 예술 작품은 현실의 거울이 아니라, 현실을 다르게 구성해보는 하나의 장치이며, 이는 예술을 일종의 실재 구성 실험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더 나아가 예술은 특정한 사회적 제도와 맥락 속에서 ‘무엇이 예술로 간주되는가’를 둘러싼 규정 싸움의 산물이기도 하다. 즉, 작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제도 내에서 배치되고, 어떤 담론에 의해 해석되느냐에 따라 ‘예술성’이 결정되기도 한다. 마르셀 뒤샹이 변기를 ‘레디메이드’로 전시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일상 사물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제도적 맥락 안에서 ‘작품’으로 변모하였다. 이 사례는 예술이 내재적 속성이나 기술적 수준에 따라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과 맥락 안에서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작품 내부로 끌어들이는 메타적 실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예술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제도적 권위와 규범에 대한 반성적 질문으로 기능하며, 이는 예술이 사회적 실재 구성에 직접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예술은 단지 감각적 쾌락이나 미적 체험을 넘어, 실재와 인식, 제도와 권력, 해석과 경험 사이의 구조를 드러내는 매개로 기능한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행위는 단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이중 구조의 경험이다. 이는 예술이 우리의 인식 구조에 반사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세계를 보고, 해석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노출시킨다는 뜻이다. 예술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한 걸음 물러서서 재사유하게 만들며, 이로써 인간 주체가 세계를 이해하는 ‘지각의 프레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을 제공한다.

결국, 예술은 실재를 묘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재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비판적 실천이다. 예술은 실재를 설명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탐색하며, 이로써 감각, 규범, 권력, 의미의 구조를 뒤흔드는 하나의 사유 장치로 기능한다. 예술은 실재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실재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유예시키는 질문의 형식이며, 이로 인해 예술은 단지 사물의 형상이 아니라, 사유의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48.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예술의 형식’은 작가 개인의 주관적 미감이라기보다는, 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하게 하는 규범적 구조로 기능한다.
- ② 예술은 단지 실재의 재현이 아니라, 실재의 구성 조건을 탐색하고 조작할 수 있는 인식론적 실천이다.
- ③ 예술은 제도와 권력의 외부에 존재함으로써, 그 스스로 사회적 규범과 담론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순수 자율성을 확보한다.
- ④ ‘예술로서의 성립’은 작품의 내재적 속성보다는 제도적 맥락과 해석 조건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
- ⑤ 예술을 감상하는 행위는 단순한 미적 이해를 넘어서, 자신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경험을 동반한다.

49. 윗글에서 제시된 ‘플라톤’의 예술관과 의미상 가장 대립되는 주장은?

- ① 예술은 실재를 외면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의 조건과 경계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재구성하는 인식의 실천이다.
- ② 예술은 감각적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데아에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 ③ 모든 예술은 실재의 일차적 본질이 아닌, 그 그림자의 반복에 불과하므로, 지성의 작용을 방해하는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
- ④ 예술은 실체를 정확히 묘사하지 못할 수 있으나, 감정과 상정을 통해 인간 내부의 본질적 욕망을 묘사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⑤ 예술은 이차적 실재의 표현일지라도, 교육적 도구로 활용될 경우 일정 수준의 가치는 지닐 수 있다.

5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화비평 블로그 「미술관, 그곳의 풍경」 中

나는 지난주 모 현대미술관의 전시에서 벽에 붙은 낡은 가정용 메모지와 낙서들을 ‘작품’이라고 부르는 장면을 마주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다. 그것은 너무 평범하고 기능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고, 그것이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들이 수행한 일상적 관리와 기록의 실천을 시각화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관람자와의 새로운 관계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작품’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 낙서들은 평범한 물건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위치가 전환된 해석 가능한 기호가 되었다. 나는 이제 예술이 반드시 뛰어난 기술이나 시각적 아름다움을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 ① 글쓴이는 예술의 정의가 작품의 기술적 속성보다 사회적 맥락과 해석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군.
- ② 해당 전시를 통해 글쓴이는 예술의 가치 판단이 감각적 쾌락이나 미적 기준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깨달았을 가능성이 있군.
- ③ 글쓴이는 예술을 예술로 만들어주는 요소가 ‘작가의 의도나 기술’보다는 ‘관람자의 해석 참여’에 있음을 체감하였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글쓴이의 경험은 예술이 단지 관람 대상이 아니라, 제도적 배치를 통해 실재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사례로 해석되겠군.
- ⑤ 해당 경험은 예술이 관람자의 인식 구조를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시사하고 있는군.

5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어느 지역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버려진 공장 외벽에 거대한 벽화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벽화는 해당 지역의 노동운동사와 지역 공동체의 삶을 시각적으로 담아낸 것으로, 초기에는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그림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반감을 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역 주민들은 그 벽화를 통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자체가 기억과 감정의 매개로 작용하면서 ‘동네의 얼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일부 평론가들은 이 벽화를 두고 “미학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기능과 의미 구조의 재배치가 중심이 된 작업”이라 평했다.

- ① <보기>의 사례는 예술의 가치 판단이 시각적 아름다움보다, 사회적 의미와 감정적 매개 구조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② 윗글과 달리, <보기>는 예술이 고유한 형식이나 제도적 맥락을 벗어나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따라 평가되는 장르임을 강조한다.
- ③ <보기>의 벽화는 특정한 사회제도나 권력관계의 개입 없이, 예술의 자율성만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④ <보기>에서 예술은 실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거나 구성하지 않으며, 단지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 ⑤ 윗글에서 제시된 예술의 인식론적 기능과 <보기>에서의 예술의 공동체적 기능은 상호 긴장 관계에 있으므로, 동일 선상에서 해석하기 어렵다.

독서 해설

[1~3] 독서론 1

지문 분석

1. 텍스트 지향성

- 독서를 정보 전달, 저자의 의도 복원으로 보는 입장.
-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고, 독자는 수동적.
- 장점: 의미 해석의 객관성 확보 가능.
- 한계: 해석의 다양성·독자의 능동성 배제.

2. 독자 지향성

- 독서를 의미 구성의 사건으로 보는 입장.
- 독자의 경험·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 장점: 해석의 다양성, 새로운 의미 창출 가능.
- 한계: 주관적 투사로 흐를 위험.

3. 최근 독서 이론의 조율

- 독서란 텍스트와 독자의 상호작용 과정.
-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긴장과 대화를 거쳐 산출.
- '수평 융합' 개념이 대표적: 독자 지평 + 텍스트 지평의 대화.

출제 포인트:

- 서로 다른 관점의 핵심 구분(고정성 vs 구성성)
- 독서의 과정에서 텍스트와 독자의 역할
- 최근 이론의 절충적 성격
- 보기/학생 활동을 통한 적용 문제

문항 해설

1번

→ 정답: ④

(해설) 텍스트 의미의 고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객관적 해석'을 중시하지만, '해석 다양성을 확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해석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억제하는 한계가 있다. 나머지 선지는 지문 내용과 부합한다.

2번

→ 정답: ②

(해설) <보기>에서 말하는 '텍스트의 제약'은 언어적 구조가 지시하는 의미적 방향을 뜻한다. 이를 곧바로 저자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의 고려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지문과 부합한다.

3번

→ 정답: ④ (㉠, ㉡, ㉢)

(해설)

- ㉠: 텍스트 지향성의 한계를 올바르게 파악함 → 적절.
- ㉡: 독자 지향성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 → 적절.
- ㉢: 수평 융합 개념을 사례로 적용한 것 → 적절.
- ㉣: 텍스트 지향성은 '독자 맥락 완전 배제, 구조만 절대적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텍스트 의미를 고정적으로 보는 것이 지, '독자 맥락=전혀 무시'로 단언되진 않음 → 부적절.

[4~7] 독서 1

지문 분석

1. 지문 주제와 맥락

- 주제: 법의 정당성과 존재 근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 전개:
 - ① 자연법론 : 법과 도덕의 결합 → 불의한 법은 법이 아님
 - ② 법실증주의 : 법과 도덕의 분리 → 절차적 정당성만 확보되면 법으로 인정
 - ③ 하트 : 법을 1차 규칙과 2차 규칙으로 구분 → 법체계의 자기 점검 강조, 그러나 여전히 도덕과 구분
 - ④ 풀러 : 법의 '내재적 도덕'을 강조 → 절차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법으로 기능 불가
 - ⑤ 현대적 시사점 : 인권, 헌법 가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은 도덕과 다시 결합을 요구받음. 동시에 안정성도 필요.

즉, 법=절차적 합법성 vs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전통적 대립을 현대적으로 재조정하는 논의.

2. 핵심 개념 정리

- **자연법론**
 - 법의 본질 = 도덕적 가치 실현.
 - 불의한 법은 법이 아님.
 - 법과 도덕의 일체성 강조.
- **법실증주의**
 - 법=국가가 정한 규칙(명령) → 적법 절차 거쳤으면 무조건 법.
 - 도덕 여부는 별개.
 -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
- **하트**
 - 법을 "1차 규칙"(행위 의무 규율) + "2차 규칙"(1차 규칙을 평가·수정하는 메타규칙)으로 구분.
 - 이로써 법체계는 자기 점검, 자기 수정 가능.
 - 그러나 도덕과는 구분된 체계.
- **풀러**
 - 법의 내재적 도덕(일반성, 명확성, 일관성, 공표성, 예측 가능성 등)을 강조.
 - 이를 갖추지 못하면 '법'으로 기능 불가.
 - 실증주의 비판: 단순 절차만으로는 부족.
- **현대적 결론**
 - 인권·헌법 가치가 법과 도덕의 결합을 요구.

-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도 필요.
- 결국 법은 도덕성과 안정성의 긴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

3. 출제 포인트

- 법의 존재론적 정의: 법=도덕 포함? 절차만?
- 자연법 vs 법실증주의 차이: 법의 정당성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 하트의 규칙론: 1차·2차 규칙의 구분.
- 풀러의 내재적 도덕: 법이 법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
- 현대 적용 문제: 인권·언론 자유·절차 정당성 같은 사례 제시 후 관점별 해석 비교.

문항 해설

4번

→ 정답: ④

(해설) 풀러는 법이 적법 절차만 거쳤다고 해서 법으로 기능한다고 보지 않았다. 그는 법이 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내재적 도덕(일반성·명확성·예측 가능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④는 글과 부합하지 않는다.

5번

→ 정답: ③

(해설) ㄱ은 옳지 않다. 자연법론은 법을 단순히 국가 권력의 명령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규범으로 이해한다. ㄴ은 옳다. 법실증주의는 불의하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면 법으로 인정한다. ㄷ도 옳다. 하트는 법과 도덕의 구분을 유지하면서도 법체계의 자기 수정 가능성을 강조했다. ㄹ 역시 옳다. 풀러는 내재적 도덕이 결여되면 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답은 ㄷ, ㄹ이다.

6번

→ 정답: ⑤

(해설) A는 옳지 않다. 법실증주의는 도덕과 분리를 강조했으나, 현대 사회의 인권 문제와의 관계성 논의는 여전히 가능하다. B는 옳다. 풀러의 내재적 도덕 개념은 법실증주의를 비판하면서 법의 최소 조건을 제시한다. C는 옳지 않다. 하트는 단순한 안정성 강조에 머무르지 않고, 2차 규칙을 통해 법체계의 자기 점검 기능을 설명했다. 따라서 B만 적절하다.

7번

→ 정답: ⑤

(해설) (가) 자연법론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의한 법은 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나) 법실증주의는 적법 절차를 거쳤다면 도덕성과 무관하게 법으로 인정한다. (다) 풀러는 법이 내재적 도덕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으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도덕적 결함이 법의 존재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8~11] 독서 2

지문 분석

1. 지문의 주제와 전개

- 지문은 예술 작품의 의미 형성을 두 축 — 형식의 자율성과 사회·역사적 맥락 의존성 — 으로 대비하면서, 이 둘의 긴장과 상호 작용을 논한다.
- 단순히 ‘형식 vs 맥락’의 이분법이 아니라, 현대 예술론의 과제를 양자의 조화적 분석으로 제시한다.

2. 핵심 개념 정리

1. 형식 자율성론

- 형식은 단순한 ‘내용 전달 수단’이 아니라 작품 의미를 스스로 형성하는 구성 원리.
- 예시:
 - 세잔: 대상을 구조적 질서로 환원 → 재현 개념의 변형.
 - 큐비즘: 다중 시점 병치 → 화면 자체가 의미 생성의 장.
 - 칸딘스키: 색채·선 자체가 감정과 영적 상태를 환기.
 - 음악의 절대음악론과 비교: 내용 서술 없이 형식 전개만으로 의미 성립.

2. 맥락 의존성론

- 형식만으로는 의미가 고정되지 않음.
- 작품은 제작된 시대·사회·제도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
- 동일한 형식도 시대·작가의 위치·미술 제도에 따라 다른 의미 부여 가능.
- 해석학적 확장: 지평 융합. 관람자의 역사·언어·문화 배경이 형식과 만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

3. 지문 구조

- ① 인상주의 이후의 전환 → 세잔 → 큐비즘 → 형식 자율성의 등장
- ② 절대음악 개념과 연결 → 추상화 운동 → 형식의 의미 자체화
- ③ 형식 자율성론의 비판 → 사회·역사 맥락의 중요성 제기
- ④ 해석학으로 확장 → 관람자 배경과 형식의 상호작용 → 의미의 재구성
- ⑤ 결론: 형식 자율성과 맥락 의존성은 상호 보완적임.

4. 출제 포인트

- 대조 구조: 형식 자율성론 vs 맥락 의존성론

- 예시 연결: 세잔·큐비즘·칸딘스키 ↔ 사회 제도·해석학
- 개념 전환: 형식의 독립 → 맥락 속 상호작용
- 핵심 단어: '재현 변형', '자율성', '맥락', '지평 융합', '상호 보완'

5. 사고 확장

- 수험생이 단순한 정리 수준을 넘어, 예시와 이론을 교차 연결해야 한다.
- '형식만으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나?'라는 비판을 이해하고, 해석학적 맥락 의존성이 어떻게 대안이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최종적으로는 두 입장이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지점이 핵심 결론.

문항 해설

8번

→ 정답: ②

(해설) 맥락주의는 형식이 전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맥락과 상호작용할 때 의미를 형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형식이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9번

→ 정답: ④

(해설) ㄴ (맥락주의는 동일 형식도 시대·제도에 따라 의미가 다르다), ㄷ (해석학은 전통·언어·역사가 해석에 작동한다), ㄹ (형식주의와 절대음악의 연관성)은 모두 적절하다. ㄱ은 '보편성을 문화·역사 맥락에서 찾는다'고 한 것으로, 이는 맥락주의이지 형식주의가 아니다.

10번

→ 정답: ⑤

(해설) 해석학은 의미가 고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관람자의 지평과 작품의 지평이 충돌·융합하며 잠정적 의미를 만들어낸다고 본다. 따라서 ⑤는 부적절하다.

11번

→ 정답: ④

(해설) 지문에서의 '반영'은 사회·역사적 조건이나 갈등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이는 ④번과 의미가 동일하다. ①은 물리적 '비침', ②·③·⑤는 '의견·상황의 반영'으로 행정적·실무적 의미이므로 다르다.

[12~17] 독서 3

지문 분석

I. 지문 구조

- (가)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
- 도덕은 덕 형성에 있음.
- 덕은 습관적 행위와 사회적 맥락 속 훈련을 통해 획득.
- 덕의 핵심은 중용: 상황적 맥락에서 과잉과 결핍 사이의 적절한 선택.
- 도덕 판단은 보편적 규칙보다는 맥락적 지혜(실천적 지혜)에 의존.
- 개인의 덕은 정치 공동체의 선과 연결됨.
- (나) 칸트 윤리학
- 도덕은 의무(duty) 준수에 있음.
- 도덕 원리의 기준: 정언 명령
- “네 행위의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행위의 도덕 가치는 외적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의해 결정.
- 도덕적 행위자는 자율적 존재: 자기 입법(self-legislation)한 법칙에 스스로 복종.
- 도덕은 역사·관습과 무관하게 보편적 타당성을 지님.

II. 핵심 개념 비교

구분	(가) 아리스토텔레스	(나) 칸트
도덕의 중심	덕 (중용)	의무 (정언 명령)
행위 판단 기준	맥락적 상황, 실천적 지혜	보편적 법칙 가능성
도덕 가치 근거	습관·공동체·삶의 맥락	동기 (의무로서 행위)
주체의 성격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는 덕 있는 인간	자율적 입법자로서의 인간
보편성	관습+지혜 속의 맥락적 보편	선형적, 이성적 근거 한 보편

III. 출제 포인트

1. 도덕 기준의 근거 차이

- (가): 행위의 맥락 속 ‘중용적 판단’ → 보편성은 공동체와 경험적 삶 속에서 형성
- (나): ‘정언 명령’이라는 보편적 법칙 → 초역사적·초문화적 기준

2. 행위 도덕성 평가 기준

- (가): 결과적 삶의 품성(습관화된 덕)
- (나): 행위의 동기(의무로서 행위인가?)

3.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

- (가): 개인의 덕은 공동체 선과 직결
- (나): 공동체와 무관하게, 도덕성은 주체의 자율적 이성에서 확보

4. 자율성 개념의 차이

- (가): 맥락 속 자기조절(중용 선택)
- (나): 자기 입법적 이성으로 인한 보편적 준칙 준수

IV. 출제 난이도 포인트

- 적절·부적절 판단: 아리스토텔레스 윤리가 단순히 “관습 윤리”에 그치지 않음을 잡아내는 문제 가능.
- 선택지 분별력: 칸트 윤리에서 “조건적 준칙”과 “정언 명령”의 구분이 핵심.
- 보기 적용 문제: 사례(예: 언론 검열법, 교사 지도 방식 등)를 제시해, 관점별 해석 차이를 적용하도록 출제.
- 어휘 문제: ‘자율성’ 같은 개념어의 철저한 문맥적 의미를 다른 문장 사례와 비교하도록.

V. 정리

- (가)와 (나)는 모두 도덕적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 (가)는 맥락·습관·공동체라는 경험적 윤리학
- (나)는 선형적 보편성·자율성을 강조하는 형식적 윤리학으로 대조된다.

문항 해설

12번 → 정답: ③

(해설) (가)는 덕의 형성을 공동체 맥락 속에서 보지만, 도덕 기준을 '관습적 규범'에 단순히 두지는 않는다. 이성적 중용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둘 다 도덕 기준을 공동체 관습에 둔다"는 진술은 부적절하다.

13번 → 정답: ④

(해설) ㄱ은 맞다(아리스토텔레스는 상황적 중용을 강조). ㄴ은 틀리다(칸트의 정언 명령은 조건적 준칙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 법칙). ㄷ은 맞다(칸트는 동기를 의무의식에서 찾음). ㄹ은 맞다(아리스토텔레스 윤리는 정치 공동체와 연결). 따라서 ㄱ·ㄷ·ㄹ만 옳아 ④가 정답이다.

14번 → 정답: ⑤

(해설) 칸트는 공동체 관습을 도덕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틀린 추론. 나머지는 (가)와 (나)의 논지와 부합한다.

15번 → 정답: ①

(해설) (가)에서는 습관과 중용을 통한 덕 형성을 강조하므로 교사 A(상황적 맥락과 습관 강조)에 가깝다. (나)에서는 거짓말을 원칙적으로 금하는 의무론이므로 교사 B에 부합한다. 따라서 ①이 정답.

16번 → 정답: ④

(해설) (나)에서 B 시민의 행위는 '의무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틀린 설명.

17번 → 정답: ①

(해설) '자율성'은 '외부 강제가 아닌 자기 입법과 자기 준수'의 개념이다. ①은 이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머지는 외부 권위·규정·압력에 의한 타율적 복종을 나타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18~20] 독서론 2

지문 분석

이 지문은 독서론 제재로, 매체 조건·형식적 구조·인지적 과정이 독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고 있습니다.

1. 구술 문화의 독서

- 텍스트는 공동체적 맥락 속에서 '수행적 사건'으로 기능.
- 의미는 개인 내면보다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

2. 인쇄 문화의 독서

- 텍스트는 고정된 대상으로 확립.
- 개인 독자가 내면적 사유와 비판적 성찰을 강화.
- '연속성·몰입·내면화'가 특징.

3. 디지털 독서

- 하이퍼링크·멀티모달 요소 → 비연속성·주의 분산.
- 동시에 연상적 사고와 다중 관점 수용 가능.
- 인쇄 독서와는 다른 새로운 인지 양식 형성.

4. 인지과학적 시사점

- 독서는 뇌의 작업 기억·주의 자원과 상호작용.
- 매체와 형식은 단순한 외피가 아니라 인지 과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침.

즉, 독서 행위는 내용 해석 + 매체 조건 + 인지 과정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문항 해설

18번

정답 → ③

(해설) 지문은 디지털 독서가 몰입과 연속성을 강화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하이퍼링크와 멀티모달 요소로 인해 비연속성과 주의 분산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③은 지문과 불일치한다. 나머지는 모두 지문과 부합한다.

19번

정답 → ③

(해설) <보기>의 연구자는 디지털 독서가 단순히 인쇄 독서의 대체일 뿐 새로운 인지 양식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문은 디지털 독서가 주의 분산을 초래하면서도 연상적 사고와 다중 관점 수용이라는 새로운 인지 양식을 창출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보기>는 지문과 상반되며, ③이 적절하다.

20번

정답 → ②

(해설) 학생 A는 독서를 '내용 해석 행위'로만 한정하면서 매체와 형식이 사고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했다. 이는 지문과 어긋난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이 지문을 잘못 이해했음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학생의 문제 제기가 학계 논쟁과 관련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지문 내용과 교사의 평가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21~24] 독서 4

지문 분석

1. 전체 구조 파악

이 지문은 경매 이론이라는 경제학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경매 방식을 비교·분석하면서 정보 비대칭, 전략적 행동, 사회적 후생 효과까지 다루는 비문학이다.

• 1문단 : 경매가 단순 거래 방식이 아니라 정보와 전략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연구 대상임을 밝힘. → 주제 제시.

• 2문단 :

- 밀봉 입찰 경매 (1등 가격·2등 가격/Vickrey) 설명.
- 전략 차이와 균형 조건을 비교.

• 3문단 :

- 상승식 공개 경매(영국식 경매) 설명.
- 밀봉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균형이 형성됨을 강조.

• 4문단 :

-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의 문제점 제시.
-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설명.

• 5문단 :

- 사회적 후생과 정책적 적용.
- 단순한 효율성 → 신뢰·투명성 문제까지 확장.

즉, ① 기본 유형 설명 → ② 균형 전략 분석 → ③ 정보 비대칭의 함정 → ④ 정책적 시사점의 흐름을 가진다.

2. 핵심 개념 정리

(1) 경매 방식

- 1등 가격 밀봉 입찰 경매

최고 입찰자가 낙찰, 본인이 써낸 가격을 지불.

→ 전략: 진짜 가치보다 낮게 써야 이익.

- 2등 가격 밀봉 입찰 경매 (비크리 경매)

최고 입찰자가 낙찰, 하지만 2등 입찰가만 지불.

→ 전략: 자신의 가치 그대로 써내는 것이 지배 전략.

- 상승식 공개 경매 (영국식)

호가를 올려가며 경쟁, 마지막 남은 사람이 낙찰.

→ 균형적으로는 비크리 경매와 유사한 결과.

(2) 정보 비대칭

- 개인 가치 경매(private value auction) : 각자 가치가 독립적. → 효율적 낙찰 가능.

- 공통 가치 경매(common value auction) : 진짜 가치는 동일하지만 추정치만 다름.

→ 승자의 저주 발생: 가장 과대평가한 사람이 낙찰받아 손해 볼 수 있음.

(3) 사회적 후생·정책적 적용

- 이상적 조건에서는 효율적 자원 배분 가능.
- 현실에서는 정보 비대칭, 투기, 담합 → 시장 왜곡.
- 따라서 경매 설계는 효율성과 신뢰·투명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3. 함정 요소 분석

1. 1등 vs 2등 가격 경매 차이

- 수험생이 “낙찰 조건”만 보고 두 방식을 혼동할 수 있음.
- 포인트는 “지불 가격”이 다르며, 전략적 균형도 다름.

2. 상승식 공개 경매

-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방식(공개 경쟁)이지만, 이론적으로는 2등 가격 경매와 결과가 같다는 점이 중요.

3. 승자의 저주

- 단순히 “과대 입찰 → 손해”가 아니라, 공통 가치 경매라는 전제가 필요.
- 학생들이 “모든 경매에서 생김”이라고 오해할 수 있음.

4. 사회적 후생

- 단순 효율성만이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 결론.
- 문제 출제 시 “효율성만 강조하는 선지”가 함정으로 쓰일 수 있음.

문항 해설

21번

정답 → ④

(해설) 지문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에서 단순 최고가 낙찰제가 투기적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시장 설계론적 우려로 제시된 것이지, 이를 ‘절차적 정당성 침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절차적 정당성은 법실증주의 맥락에서 다루는 개념이고, 지문 맥락에서 ‘시장 독점’은 효율성과 형평성 문제이지 절차적 정당성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부합하지 않는다.

22번

정답 → ② (ㄴ, ㄷ)

(해설)

- ㄱ: 롤스는 사회 제도의 역사적 경험 차이가 아니라,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된 원리를 강조했다. 따라서 틀림.
- ㄴ: 노직은 불평등하더라도 자원의 취득·이전 절차가 정당하다면 정의롭다고 보았다. 맞음.
- ㄷ: 시장 설계론은 규칙 변화가 배분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맞음.
- ㄹ: 탄소 배출권 경매는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 고려 대상임이 지문에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틀림.

23번

정답 → ⑤

(해설) 시장 설계론은 단일하고 변동 불가능한 공정성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지문에 명시되었다. 오히려 사회적 가치 충돌 속에서 조율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⑤는 지문과 반대. ①~④는 지문의 논지를 잘 따른 추론이다.

24번

정답: ④

(해설)

- ①: 롤스의 차등 원칙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므로 응급 환자 우선 배분(안 A)과 부합. 적절.
- ②: 노직은 자유 교환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므로, 시장 경매(안 B)는 정당성이 있다고 평가 가능. 적절.
- ③: 시장 설계론은 무작위 추첨(안 C)이 자원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음. 적절.
- ④: 안 B는 약자의 이익이 강화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롤스의 관점에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부적절.
- ⑤: 해석학적 확장 관점은 문화·역사 맥락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적절.

[25~28] 독서 5

지문 분석

1. 제재 및 주제

- 제재: 과학·기술 (고체물리학, 위상 물질, 양자 소자 응용)
- 주제: 전자의 밴드 구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위상 물질의 성질과, 이를 응용하려는 현대 과학·기술적 시도 및 한계.

2. 지문 전개 구조

① 전통적 설명의 한계

- 기존 고체 물리학은 전자의 거동을 밴드 구조(도체·부도체·반도체)로 설명.
- 그러나 단순히 밴드 갭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 등장 → 위상 물질.

② 위상 절연체의 특성

- 내부 절연, 표면 전도.
- 스핀-궤도 결합, 시간 반전 대칭성에 의해 안정적으로 형성.
- 외부 교란에도 쉽게 소멸되지 않음.

③ 수학적 비유 (위상수학)

- 도넛과 커피잔 → 국소적 변형에도 보존되는 위상적 불변량.
- 위상 물질의 전도 특성도 같은 성격.

④ 응용 가능성

- 양자 소자: 잡음·온도 변화에 강한 소자 가능.
- 위상 초전도체: 마요라나 준입자 → 잡음에 내성이 강한 양자 큐비트 가능.

⑤ 제약과 난제

- 특정 조건(온도, 압력, 대칭)에서만 안정적.
- 위상 초전도체는 이론적 예측만 있고 실험적 확증 부족.
- 대규모 제어 문제 미해결.

⑥ 확장성

- 전자계뿐 아니라 광자·음향계에도 적용 가능.
- → 비산란 광소자, 소음 제어 등 새로운 응용 가능.
- 위상 개념 = 물리학을 넘어 파동 일반에 적용 가능한 보편 원리.

3. 핵심 개념 정리

- 밴드 구조: 전자의 에너지 상태 배열 → 전도 여부 판단.
- 위상 물질: 물질의 성질이 '위상적 특성'에 의해 규정 → 안정적 전도.
- 위상수학 비유: 도넛=커피잔 → 국소 변형에도 보존되는 특성.
- 위상 보호(topological protection): 잡음에도 전도 특성 유지.
- 마요라나 준입자: 양자컴퓨터용 오류 내성 큐비트 후보.
- 규율 조건: 온도, 압력, 대칭성 등 실험적 제약.
- 광자·음향 위상 절연체: 전자학적 응용을 넘어선 확장.

문항 해설

25번

정답 → ②

(해설) 윗글에 따르면 위상 절연체는 내부가 절연체이고 표면에서만 전도가 일어난다. 따라서 '내부의 전도성이 유지되면서, 외부 표면은 절연성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정반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6번

정답 → ②

(해설) 특정 물질이 압력·온도 등 조건에 따라 위상적 특성을 유지하거나 상실한다면, 이는 '위상적 안정성'이 절대적 불변이 아니라 물리적 조건에 의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지문에서 언급한 "위상적 특성이 조건 속에서만 발현될 수 있음"과 부합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지문 내용과 상충한다. (①·③은 위상수학적 불변량의 의미를 왜곡했고, ④는 매질 의존성을 무시했으며, ⑤는 '실험적 불확증=이론적 부정'이라는 잘못된 추론이다.)

27번

정답 → ④

(해설) 지문에 따르면, 위상수학적 불변량은 '조건이 충족될 때' 전도 특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만, 외부 잡음·결함 같은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안정성이 무너질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불변량의 무의미함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량이 '현실적 조건과 결합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글의 관점을 충실히 반영한다.

28번

정답 → ④

(해설) 지문에서 '보호'는 위상수학적 불변량이 외부 결함이나 잡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정성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법적 보장(②,⑤)이나 예방 차원의 수단(③)이 아니라, 내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견고함을 가리킨다.

①은 물리적 안전과 관련되지만, '내진 설계'는 외부 요인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공학적 설계이므로 맥락상 차이가 있다.

④의 '산호초가 외부 충격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자연적 보호 장치'는 지문 속 위상학적 안정성과 가장 유사하다.

[29~34] 독서 6

지문 분석

(가) 하버마스

• 핵심 문제의식: 근대 합리성이 도구적 합리성(효율성 중심)에 과도하게 치우친 점 비판.

• 구조:

① 도구적 행위 vs 의사소통 행위: 도구적 행위는 효율적 목적 달성, 의사소통 행위는 상호 이해와 합의 추구.

② 언어 행위 이론: 발화에는 4가지 타당성 요구(진실성, 정당성, 진정성, 명료성)가 존재. →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검증 가능.

③ 규범 정당화: 법·제도 정당성은 단순한 절차적 합법성보다 담론적 합의 여부에서 확보됨.

④ 비판과 응답: 현실에서는 권력 불평등 때문에 이상적 담화 상황은 불가능. → 하버마스: "완전히 구현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비판적 준거점으로서 기능하는 규범적 가상임을 강조.

• 핵심 키워드:

도구적 합리성 / 의사소통 행위 / 타당성 요구 / 이상적 담화 상황 / 규범적 가상 / 담론적 민주주의

(나) 푸코

• 핵심 문제의식: 근대 합리성과 주체 개념을 해체. 권력은 단순 억압이 아니라 규율 권력, 생명 권력으로 내재적·생산적으로 작동.

• 구조:

① 규율 권력: 교도소·학교·병원·군대 등에서 '감시'와 '규범화'를 통해 개인을 형성. 판옵티콘 모델 → 감시의 내면화 → 자기 규율.

② 권력-지식: 지식은 권력의 산물. 의학·범죄학·성 과학 등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권력이 생산한 담론. → '정상/비정상', '합법/위법' 구분 형성.

③ 생명 권력: 인구 집단 전체를 관리(출산율, 질병, 노동력). 삶을 돌본다는 명목으로 국가적·경제적 목적에 종속.

④ 담론과 권력: 담론은 권력 외부에서 성립하지 않음. → 권력은 담론을 왜곡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담론 자체의 조건이자 구성 원리.

• 핵심 키워드:

규율 권력 / 판옵티콘 / 권력-지식 / 정상-비정상 / 생명 권력 / 권력은 담론의 조건

(가)와 (나)의 대비

- 하버마스: 권력 왜곡 이전의 이상적 담화 상황을 규범적 이상으로 설정. → 합리적 합의 가능성을 전제.
- 푸코: 권력 없는 담론 자체를 부정. 담론은 권력-지식 체계에 의해 구성됨. → 권력은 담론 외부 장애가 아니라 담론의 조건.
- 공통점/차이점: 사회 질서의 정당화 문제를 다루되,
• 하버마스는 규범적 준거(합의 가능성)를 제시.
• 푸코는 권력 해체적 비판(합의 불가능성)을 강조.

출제 포인트

1. 타당성 요구와 이상적 담화 상황의 의미 이해.
2. 권력-지식 개념과 판옵티콘, 생명 권력의 작동 방식.
3. (가)와 (나)의 담론 이해 방식 대비.
4. 현대적 사례 적용: 법·제도 정당화, 검열법, 의료 자원 배분 등.
5. 어휘 문제: '조건'을 구성적 전제, 존재 가능성의 기반으로 파악할 것.

문항 해설

29번

정답 → ②

(해설)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을 “경험적으로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규범적 이상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따라서 ‘경험적으로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틀림.

30번

정답 → ①

(해설)

- ㄱ: 옳음. 하버마스는 다수결이라도 소수자의 참여가 배제되면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본다.
 - ㄴ: 옳음. 푸코는 질병 개념조차 권력-지식의 산물로 보고,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 ㄷ: 틀림. 하버마스는 규범적 비판 준거를 제공하지만 권력 불평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고, 푸코는 권력 분석에는 강점이 있으나 규범적 비판 준거 제공에는 제약이 있다.
 - ㄹ: 옳음. 푸코는 권력이 억압적일 뿐 아니라 생산적임을 강조했다.
- ㄱ, ㄴ만 옳음.

31번

정답 → ①

(해설) (가) 하버마스는 언어 행위에 내재된 보편적 타당성 요구를 전제하고, (나) 푸코는 언어가 권력-지식 체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나머지 선택지는 (가)와 (나)의 입장을 잘못 뒤섞거나 왜곡했다.

32번

정답 → ④

(해설) 푸코는 담론이 권력 외부에서 자율적으로 성립한다고 보지 않고, 권력 자체가 담론을 구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시민들의 논쟁이 권력 외부의 자율적 담론 과정에서 전개된다”는 설명은 푸코 관점과 어긋난다.

33번

정답 → ②

(해설) 푸코는 율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는 과학적 진리나 언론 보도를 중립적 사실이 아니라 권력-지식의 산물로 본다.

동시에 그는 갑의 주장이 제시하는 “합리적 합의” 개념이 권력의 작동을 간과했다고 비판할 것이다. 반면 하버마스는 갑의 주장을 지지하지만 을의 주장은 이상적 담화 상황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아 수용하지 않는다.

34번

정답 → ①

(해설) 윗글에서 ‘조건’은 특정 현상이 가능해지게 하는 전제적·맥락적 배경을 의미한다. ①의 “건강은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건이 되어 형성된다”가 동일한 의미이다. ②는 물리적 필요조건, ③·④는 계약·합의의 전제 조건, ⑤는 원인·결정 요인에 가까워 문맥과 다르다.

[35~37] 독서론 3

지문 개요

이 글은 독서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는 능동적 행위임을 전제로 한다. 특히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그 전략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초인지’의 역할이 독서의 질적 향상을 좌우한다고 본다.

도식화

[독서의 본질]

- 독자는 목표를 가지고 의미를 구성
- 글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조직



[독서 전략]

- 제목, 소제목, 핵심 문장, 메모, 재독 등
- 글의 구조(비교, 인과 등)에 따라 전략 달라짐



[초인지의 개입]

- 독자가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점검
- 전략이 효과적인지 판단
- 필요 시 전략 수정 또는 대체



[능동적 독서 완성]

- 글의 복잡성에도 유연하게 대응
- 스스로 문제 인식 및 해결

핵심 개념 요약

독서 전략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구체적 방법들로, 예측, 정리, 도식화 등이 포함된다. 이는 경험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습득하기도 한다.

글의 구조는 단순히 문단 배열이 아니라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의미하며, 설명, 비교, 인과, 문제 해결 등의 방식이 있다. 구조에 따라 적절한 전략이 달라진다.

초인지는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독자가 자신의 독서 과정을 의식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읽기 중간 중간 자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전략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필요 시 전략을 수정하거나 다른 전략으로 전환한다.

문단별 정리

1문단에서는 독서가 의미 구성의 행위이며 단순 정보 수용이 아님을 밝힌다.

2문단에서는 독서 전략의 존재와 그 활용 방식, 즉 독자의 경험 또는 의식적 선택에 따라 다양한 전략이 쓰일 수 있음을 설명한다.

3문단에서는 글의 구조가 전략 사용과 연결되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독서에 기여함을 말한다.

4문단은 핵심 문단으로, 초인지의 정의와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독서 중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고 전략을 조절하는 능동적 사고가 초인지임을 밝힌다.

5문단은 초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인지가 독서 수행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지 기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출제 포인트

1번 문항에서는 초인지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이해하고, 그에 어긋나는 진술을 판별하는 능력을 본다.

2번 문항에서는 초인지가 실제 독서 중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판단하는 사고력을 요구한다.

3번 문항은 제시문 형식을 통해 학생 활동을 평가하게 하며, 적절성과 과잉 해석 여부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지문 핵심 정리

독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전략적 활동이며, 그 전략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초인지가 독서의 효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해설

35번

문항 유형: 내용 일치/불일치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초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외적 요인에 따라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인지 과정”이라 하였으나, 지문에서는 초인지가 “독자가 자신의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능동적 활동”이라고 했다. 자동적 활성화는 초인지의 특성과 맞지 않으므로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다.

■ 오답 풀이

① 독서 전략은 독자의 경험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지문 내용과 일치한다.

② 글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정보를 조직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은 지문 전반에서 확인된다.

③ 글의 전개 방식(비교, 인과 등)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설명은 ‘전략의 핵심은 글의 구조에 맞는 조직’이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다.

⑤ 독자는 독서 중 자신의 이해 상태를 확인하고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초인지’ 관련 부분에서 명시되므로, 일치한다.

36번

문항 유형: 개념 적용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는 글을 읽는 도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읽고 메모하는 활동으로, 독자가 자신의 이해 상태를 점검하고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이는 지문에서 설명한 초인지의 전형적 사례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읽기 전 계획은 ‘전략 사용’에 해당하나 초인지 활동(점검/조정)이 아님.

③ 글의 구조를 판단하고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독서 전략 선택’으로, 초인지적 점검이 개입되었다는 근거 부족.

④ 감상적 독서 활동으로, ‘정보 구성’이나 ‘전략 조정’과 관련 없다.

⑤ 내용 정리는 ‘읽기 후 전략’이므로, 초인지적 점검 과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37번

문항 유형: 실용문 판단 / 학생 활동 평가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는 글의 전략을 다른 글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무비판적 수용’이라고 해석하였으나, 학생은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른 글에 “적용해 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전략의 전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지문에서 부정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과도한 일반화로 오답이다.

■ 오답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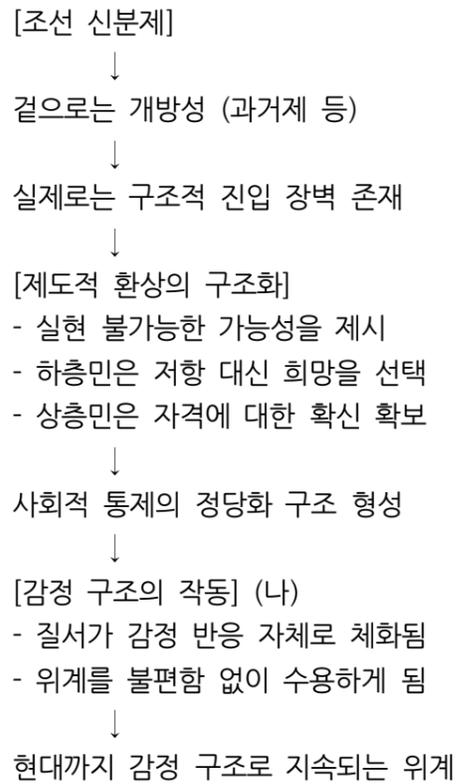
- ① 글의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을 조정하는 모습은 초인지에 해당하며, 지문 내용과 일치한다.
- ② 표로 정리하는 것은 ‘정보 조직’ 전략의 예로, 적절한 해석이다.
- ③ 마지막 문단을 다시 읽고 요약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은 초인지의 점검 기능에 해당한다.
- ④ 전략의 효과성을 의심하고 점검하려는 시도는 초인지적 조정 행위로서 지문 설명과 일치한다.

[38~43] 독서 7: 조선 시대 신분제의 제도적 환상과 감정 구조 (연계)

지문 개요

이 지문은 조선 시대의 신분제가 단순히 법적 구분이나 제도적 틀로 설명될 수 없는, 정교한 통치 구조였음을 밝히고 있다. (가)에서는 제도 자체보다도 제도가 어떻게 ‘가능성’을 가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계층 이동을 차단하는지를 분석하며, 이를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라는 개념으로 개념화한다. (나)에서는 신분 질서가 단지 제도나 규범을 통해 유지된 것이 아니라, 감정 구조를 통해 개인의 인식과 반응 방식 자체로 스며들었음을 설명한다. 이를 ‘위계의 감정화’라고 부르며, 위계가 감정의 구조로 체화되는 과정을 사회 이론적 시각에서 해석한다.

도식화



핵심 개념 요약

지문의 중심 개념은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와 ‘위계의 감정화’이다.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는, 예컨대 과거제처럼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듯한 제도적 외양을 통해 실제로는 소수만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을 은폐하는 통치 방식이다. 이 구조는 피지배자에게는 희망이라는 착시, 지배자에게는 자격이라는 확신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를 비판 없이 수용하게 만든다.

‘위계의 감정화’는 계층 질서가 감정 반응의 구조로 자리 잡는 과정이다. 개인은 특정 계층에 속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고, 특정 말투를 들으면 무의식적으로 계층을 추정하며, 심지어 혼인마저도 감정적으로 ‘신분 상승’ 혹은 ‘하락’을 판단하는 감정 구조를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감정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대학, 직업, 소비 양식, 언어 습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계 구조를 은폐하면서 지속되고 있다.

문단별 정리

(가) 지문은 조선 신분제가 표면적으로는 개방된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철저한 위계 고착 체계를 밝히는 데에서 출발한다. 1문단에서는 신분제가 법, 관습, 상징이 결합된 통치 구조였음을 개괄하고, 2문단에서는 과거제를 예로 들어 기회의 불평등을 설명한다. 3문단에서는 지문의 핵심 개념인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를 개념화하고, 그것이 정당성과 희망을 동시에 생산하는 메커니즘임을 서술한다. 이후 문단에서는 족보와 향안, 서원과 향교 같은 제도들이 상징 자본으로 기능하면서 이 구조를 물리적·상징적으로 고착시켰음을 설명한다. 마지막 문단은 이러한 구조가 사람들을 ‘자리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훈련 체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무리된다.

(나) 지문은 제도의 개념을 확장하여, 단지 규범이나 제도적 구조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과 인식 구조까지 아우르는 것으로 본다. 감정 구조가 어떻게 신분 질서를 정서적으로 정당화하는지를 중심으로 서술된다. 2문단에서는 ‘위계의 감정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지배를 수용하게 되는 감정적 방식의 내면화를 설명한다. 이후 문단에서는 언어적 요소—말투, 억양, 지칭어 등이 신분 구분의 감정 코드로 작동하는 방식을 다루고, 혼인이나 상속도 마찬가지로 감정의 정당화 과정을 거쳐 위계를 재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지막에는 이 구조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그 구조를 인식하지 못할수록 통제는 더 강력해진다는 경고로 마무리된다.

출제 포인트

이 지문은 개념 간 구분과 적용, 특히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와 위계의 감정화의 정확한 이해와 개념 간 비교를 요구한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

1. 내용 일치 / 불일치 판단 - 제도, 교육, 감정 구조 등 지문의 다층적 구조에 대한 세부 이해 요구
2. 개념 적용 - 지문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현실 사례나 제시문에 연결하여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
3. 감정 구조에 대한 추론 - 감정이 어떻게 위계 구조를 정당화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문항
4. 어휘 의미 추론 - ‘이입’처럼 핵심 개념에 포함된 추상적 어휘

를 문맥을 통해 정확히 해석해야 하는 문제

5. 복합 비교 - (가)와 (나) 각각의 관점을 통합하거나 대비하는 문제

지문 핵심 정리

조선 시대의 신분제는 단순히 제도적 분류 체계가 아니라, 기회의 환상을 통해 계층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감정 구조에 내면화시켜 사회 구성원 스스로 위계를 정당화하게 만드는 복합 통치 구조였다.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는 실현 불가능한 가능성을 제시해 질서를 유지하고,

‘위계의 감정화’는 위계를 정서적 차원에서 체화하게 만들어 통제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이 구조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할수록 통제는 더욱 완전해진다는 점에서,

지문은 통치의 구조가 제도 너머의 차원, 곧 감정과 정서의 구조로 확장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해설

38번

문항 유형: 내용 일치 / 불일치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향교와 서원이 계층 간 장벽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진술은 지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에서는 이들 교육 기관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보다는, 지역 지배층의 정치적 연대와 위계 구조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계층 간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지문 내용과 상반된다.

■ 오답 풀이

① 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은폐하여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설명은 '의도적 환상' 구조와 관련해 지문과 일치한다.
② 제도적 환상이 피지배자와 지배자 모두에게 심리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지문 중심 개념과 부합한다.
④ 감정 구조를 통해 위계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는 설명은 (나)의 중심 주장이다.
⑤ 언어적 요소가 위계 인식의 수단이 된다는 점은 (나)에서 명확히 제시되었다.

39번

문항 유형: 개념 이해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 '제도적 환상의 구조화'는 평등해 보이는 제도 안에 제도 외적 장벽을 숨겨, 실제로는 상향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다. 지문에서는 이를 통해 가능성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현은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 오답 풀이

① 감정적 억제를 통한 통제는 지문의 핵심 개념이 아니다. 초점은 감정 구조 자체의 형성이다.
② 제도는 '법적 신분 고착'이 아니라 그보다 미묘한 '상징 자본'과 '문서체계' 등을 통해 작동한다.
③ 실제로 기회가 제공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지문의 핵심 비판이다.
④ 물리적 강제를 강조하는 통치 전략은 조선 신분제의 작동 방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40번

문항 유형: 개념 적용 / 적절성 판단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 '상류층만 특정 감정 체계를 공유하도록 설계'된다는 주장은 지문과 맞지 않는다. 지문에서는 감정 구조가 사회 전체에 반복적 실천을 통해 내면화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 계층에만 감정 구조가 한정된다고 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감정 구조가 위계 질서를 감정 반응 수준에서 체화하게 한다는 설명은 지문의 핵심 개념이다.
③ 언어적 실천이 위계 구조를 감정적으로 재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은 (나)에서 상세히 설명되었다.
④ 지문은 위계 구조가 강제가 아니라 감정 구조를 통해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
⑤ 혼인과 상속이 감정 구조를 통해 위계를 구성한다는 설명도 (나) 후반부에 제시된다.

41번

문항 유형: 제시문 적용 / 비판적 판단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구조적 제약이 제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한 진술은 지문 전체 논지와 상충된다. (가)는 제도 외부에서 은폐된 구조적 장벽이 존재하며, 성공 사례는 오히려 제도적 환상의 강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판단은 지문의 핵심 개념을 오해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상향 이동 가능성의 환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사례로 해석한 관점은 지문에서 제시된 분석과 부합한다.
② 감정적 반응이 위계 구조를 정당화하는 방식이라는 해석은 (나)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④ 성공 서사가 구조적 불평등을 은폐한다는 진술은 제도적 환상 개념을 바탕으로 정당화된다.
⑤ 감동의 감정이 감정 구조의 작동 방식일 수 있다는 관점은 (나)의 논지와 일치한다.

42번

문항 유형: 사례 적용 / 감정 구조 개념의 추론
정답: ①

■ 정답 풀이

① 지문 (나)에서는 언어(말투, 억양 등)가 계층 구분의 상징 코

드로 작동하며,
 그에 따라 감정 구조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위계'로 내면화된다고 설명했다.

<보기>의 상황에서 특정 억양이 낮은 계층에 반복적으로 연결되고, 시청자들이 이를 '그냥 재미'로 수용하는 반응은 위계 구조가 감정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이는 위계의 감정화 개념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판단이다.

■ 오답 풀이

- ② 의도된 회화화 전략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위계 구조를 단순 오락 요소로 축소한 판단이며, 지문의 관점은 감정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는 장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일부 반응이 불쾌감이라는 점은 사실이나, 다수가 '재미'로 수용하고 있는 맥락에서 위계 구조가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배제되기는 어렵다.
- ④ 지역성 고정관념이 위계 구조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문은 언어와 억양이 계층 인식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 ⑤ 현실 반영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 지문은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 자체가 위계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43번

문항 유형: 어휘 의미 추론 (문맥상 의미)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 '이입'은 문맥상 외부에 존재하는 위계 질서가 개인의 내면 감정 구조로 스며들어 주체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감정 구조를 통해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지문 핵심 논지와 정확히 부합한다.

■ 오답 풀이

- ① 권위가 제도 밖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는 이입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 ② 강제의 일반화보다는 감정의 구조화가 핵심이다.
- ③ 물리적 장치 없이 작동하는 점은 맞지만, '이입'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 ④ 문화적 습관의 전환은 이입보다 반복 학습에 더 가까운 개념이다.

[44~47] 독서 8: 윌슨의 구름 상자 (연계)

지문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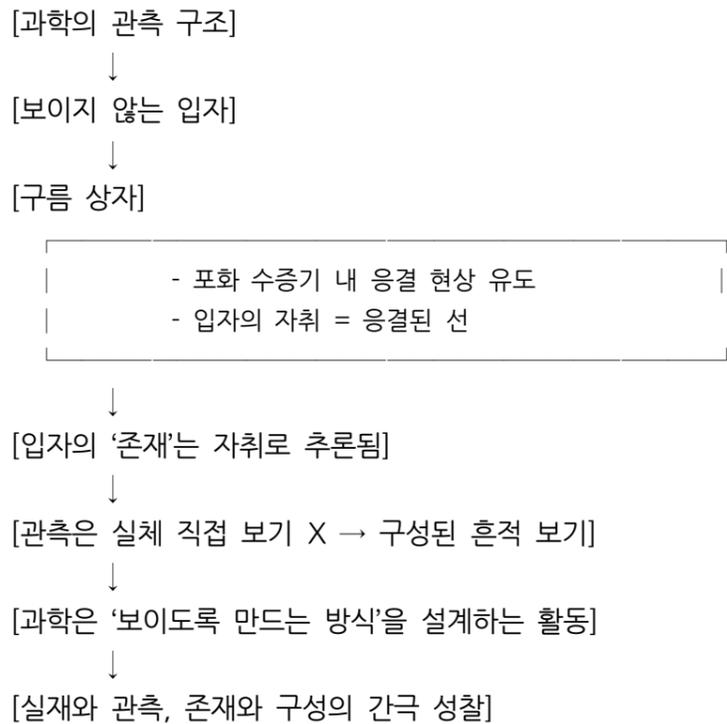
이 글은 '윌슨의 구름 상자'를 단순한 실험 장치로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과학의 인식론적 구조, 특히 과학적 관측이 구성된다는 철학적 시각을 조명하는 글이다.

구름 상자는 입자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입자가 남긴 흔적을 통해 존재를 추론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은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구성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재조명된다.

이 글은 물리학의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해, 관측의 간접성, 실험 조건의 구성성, 관측-해석의 상호작용, 실재의 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구름 상자는 '실재란 무엇인가', '관측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되묻게 하는 인식론적 장치로 제시된다.

도식화



핵심 개념 요약

구름 상자: 입자의 운동을 직접 관측하지 않고, 응결된 자취(흔적)를 통해 간접적으로 존재를 추론하는 실험 장치.

응결: 입자의 궤적을 시각화하는 핵심 물리 현상. 물리적 실체가 아닌 추론의 단서.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 과학은 존재 자체를 관측하지 않고, 존재가 드러나도록 조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함.

과학의 구성성: 관측은 실험자의 해석 구조에 따라 의미화되며,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해석 가능한 흔적의 집합임.

실재론 vs 구성론: 이 지문은 고전적 실재론을 비판하고, 과학적 지식은 구성된 조건 안에서만 실재로 인정된다고 주장.

문단별 정리

- 1문단: 구름 상자의 역사적 배경 및 등장 - 고전역학의 붕괴, 새로운 관측 방식의 요구.
2문단: 구름 상자의 작동 원리 - 포화 수증기, 입자 경로, 응결, 시각화된 자취.
3문단: 응결을 통한 자취의 해석 가능성 - 간접 관측, 해석의 필요성, 인덱스 역할.
4문단: 관측의 철학적 성찰 - 실제 직접 관측 불가, 흔적 중심 해석, 구성의 중요성.
5문단: 실험 구성 조건의 개입 - 조건 따라 흔적 달라짐, 과학의 비중립성.
6문단: 관측이 대상을 변형시킬 수 있음 - 실험자대상 간 상호작용, 불확정성 원리.
7문단: 구름 상자는 단지 실험 도구가 아니라 과학 인식론을 되묻는 장치라는 결론.

출제 포인트

- 간접 관측의 성격: 흔적을 통한 추론과 관측의 철학적 성격 이해 (비직접성, 해석 중심성).
과학의 구성성: 관측이 중립적이지 않으며 실험자의 구성에 의존한다는 점의 평가.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 고전 과학과 구성주의 과학 사이의 인식론 차이 판단.
실험 장치의 인식론적 전환: 도구가 단지 '보는 기능'이 아닌, 사유와 해석을 유도하는 장치로 작동함.
<보기>와 연계된 구성론 해석: '존재의 조건은 인식 가능성'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지문 핵심 정리

- 구름 상자는 입자 자체를 직접 보여주지 않는다.
그 대신 실험자가 구성한 조건 속에서 발생한 '응결된 흔적'을 통해, 존재를 간접적으로 구성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다.
이러한 작동 방식은 과학의 관측이 실체의 직접 복제가 아닌 조건 구성과 해석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결국, 구름 상자는 관측-구성-존재 사이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게 만드는 장치이며,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이 과학의 핵심이라는 통찰을 제공한다.

해설

44번

문항 유형: 내용 일치/불일치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번은 구름 상자 덕분에 입자의 존재 자체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이론은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었다고 했지만, 지문에서는 입자의 존재는 이론적 전제와 실험 장치의 교차 지점에서 추론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론은 여전히 필수적인 해석의 틀이며, 실험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다.

■ 오답 풀이

- ① 구름 상자가 실체가 아니라 입자의 흔적을 통해 존재를 파악하게 한다는 설명은 지문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다.
③ 입자의 자취는 실험자가 구성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과학적 관측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지문 중반부에 제시된다.
④ 구름 상자의 관측 방식이 고전적 실재론의 관측 개념을 해체했다는 설명은 '고전적 관측 개념의 전복'이라는 표현과 함께 직접 진술되어 있다.
⑤ 과학이 구성된 증거 체계 안에서 관측 대상을 해석한다고 본다는 입장은 지문 전반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45번

문항 유형: 구름 상자 개념 적용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구름 상자는 과학이 구성 행위임을 드러내며, 실험자가 만든 조건이 관측되는 대상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진술은 지문의 핵심 개념인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과 일치한다. 입자의 흔적은 실험자가 설계한 환경에서만 가시화되므로, 존재는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구성된 것'이라는 관점과 부합한다.

■ 오답 풀이

- ① 현미경은 단순 확대 장치지만, 구름 상자는 실체가 아니라 흔적을 구성하여 존재를 추론하게 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르다.
② 지문은 구름 상자를 객관성의 상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실험 구성의 개입과 해석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③ 구름 상자의 기능은 실험자의 해석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자

취만으로 입자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이 반복 강조된다.
 ⑤ 흔적은 실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연적 속성에 따라 일정하게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반복 가능성과는 무관하다.

46번

문항 유형: 개념 정확 이해 -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보이도록 만드는 방식'은 지문에서 과학이 단순히 존재를 관측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 가능하게 구성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활동임을 의미한다. 이는 구름 상자가 보여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실험자가 구성한 조건 속의 흔적이라는 설명과 일치하며, 관측 대상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닌,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인식론적 관점을 잘 반영한 선택지다.

■ 오답 풀이

- ①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축소하여 파악한 진술로, 지문의 과학 철학적 논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 ②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진술은 과학자의 구성 행위를 배제하고 있어 부적절하다.
- ④ '지각 가능한 실체를 최대한 정밀하게 포착'한다는 표현은 고전적 실재론적 관점에 가까워 지문의 핵심 논지와 어긋난다.
- ⑤ '복제'라는 표현은 지문의 '구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놓친 선택지이며, '존재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초점이 있어야 한다.'

47번

문항 유형: <보기> 정보와 지문 간 추론 비교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철학자가 과학적 관측을 인간 인식 일반의 구조로 확장해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정밀한 재현'을 목표로 한다고 진술한 것은 지문의 논리와 명백히 어긋난다. 지문 및 보기 모두 과학이 존재를 직접 복제하거나 정밀히 재현한다기보다, 존재를 구성 가능하게 만드는 해석적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③은 가장 부적절한 판단이다.

■ 오답 풀이

- ① 관측이 구성의 결과라는 인식은 보기와 지문 양쪽 모두에서 일관되게 강조된다.
- ② 존재의 조건이 인식 가능성이라는 논지는 '입자의 존재는 해석

가능한 흔적으로 추론된다'는 지문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④ 철학자의 극단적 명제는, 지문에서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과 적어도 철학적 맥락상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⑤ 인간 인식 구조의 '구름 상자적' 특성을 다룬 보기는, 지문이 제시한 관측의 철학적 반성의 연장선에 위치한다.

[48~51] 독서 9: 예술과 실재의 긴장

지문 개요

이 글은 예술의 본질을 단순한 실재의 모사로 한정짓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예술을 실재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바라보는 현대적 인식론을 제시한다.

글은 먼저 플라톤의 모사론을 소개하며 예술과 진리의 분리 문제를 제기한 뒤, 현대적 예술이 갖는 구성적 성격, 제도적 규정성, 인식구조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중심으로 예술의 사회적·철학적 역할을 단계적으로 심화시켜 나간다.

핵심은 예술이 단순한 '형상'이 아닌 '사유의 형식'이라는 주장이다.

도식화

[전통적 관점]	→	[현대적 관점]
플라톤의 모사론		예술은 실재의 재현에 불과
(이데아 → 실재 → 예술)		예술 = 그림자의 그림자

↓ 비판

형식의 자율성
 → 예술은 세계를 보는 방식을 설계함
 → 실재의 구성 조건을 드러냄
 → 해석의 구조를 반성하게 함

↓ 확장

제도/담론/맥락 중심 접근
 → 예술성은 내부 속성 아닌 제도적 배치로 규정됨
 → '무엇이 예술인가'를 다시 묻는 메타적 실천

↓ 귀결

예술은:
 - 감각을 구성하고
 - 인식을 교란하며
 - 실재에 대한 질문을 유예시키는 하나의 철학적 장치

핵심 개념 요약

모사론 비판: 예술을 진리로부터 떨어진 허상으로 보는 관점을 넘

어서야 한다는 문제의식

형식의 자율성: 예술의 형식은 단지 미적 외관이 아닌, 인식과 해석을 구조화하는 규범적 체계

실재 구성 실천: 예술은 주어진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를 구성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

제도적 맥락의 중요성: 예술은 '무엇이 예술인가'를 둘러싼 사회적 배치와 담론 속에서 규정된다

사유의 형식으로서의 예술: 예술은 단지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 방식을 성찰하게 하는 철학적 장치

문단별 정리

- 1문단: 고전 예술관(플라톤) 제시 - 예술은 실재의 그림자로서 진리와의 거리 강조
- 2문단: 형식의 개념 전환 - 단지 외관이 아닌, 인식의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요소
- 3문단: 원근법 사례 - 형식이 실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도록 구성함
- 4문단: 형식은 실재를 구성하는 조건 - 예술은 실재 구성 실험
- 5문단: 예술의 제도적 성립 - 뒤샹의 레디메이드 사례 중심으로
- 6문단: 감상은 이중구조 - 단순 감상이 아닌 인식 구조의 반성 유도
- 7문단: 귀결 - 예술은 실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에 대해 질문을 유예시키는 사유의 형식

출제 포인트

예술과 실재의 관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이해
 플라톤적 모사론과 형식 자율성의 철학적 대립
 예술의 구성성: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게 된 방식'
 제도·담론과 예술성의 관계: 예술의 외적 맥락 판단
 감상의 이중구조: 단순한 의미 파악이 아닌, 인식 방식에 대한 반성

지문 핵심 정리

이 글은 예술을 실재의 반영이 아니라, 실재를 구성하고 그 인식 조건을 노출시키는 사유의 형식으로 제시한다.
 플라톤의 전통적 모사론에서 벗어나, 예술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을 교란하고 전복하는 힘을 가진 실천으로 재해석된다.
 예술은 단지 아름다움이나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감각하는지를 되묻게 만드는 비판적 장치이다.

해설

48번

문항 유형: 내용 일치/불일치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지문에서는 예술이 제도와 사회적 권력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으며, '무엇이 예술인가'는 제도와 맥락 속에서 구성된다고 했다. 따라서 예술이 제도 밖에서 자율성을 지닌다고 보는 진술은 지문과 명백히 상충된다. 지문은 오히려 예술의 제도적 조건과 해석 구조가 예술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 오답 풀이

- ① '형식은 규범적 계약'이라는 표현은 예술 형식이 단지 외관이 아니라 관람자와 작가 간 의미 규정 구조임을 말하므로 지문과 일치한다.
- ② 예술이 실재의 재현을 넘어 구성의 실천이 된다는 설명은 '실재 구성 실험'이라는 문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 ④ 뒤샹의 레디메이드 사례는 제도적 배치에 따라 예술로 간주된다는 지문 진술과 연결된다.
- ⑤ 예술 감상이 인식 방식의 반성을 유도한다는 내용은 지문 후반부에서 '이중 구조의 경험'으로 구체화된다.

49번

문항 유형: 관점 대립 판단
정답: ①

■ 정답 풀이

①은 예술이 실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조건 자체를 탐색하는 사유의 실천이라는 입장으로, 플라톤의 모사론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플라톤은 예술을 진리(이데아)의 그림자라고 보아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며, 오히려 방해하는 환상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예술이 실재에 도달하는 통로라는 ①의 주장은 가장 강하게 대립된다.

■ 오답 풀이

- ② 예술이 감각적 한계에 간혀 이데아로부터 멀어진다는 주장은 플라톤의 핵심 주장과 일치한다.
- ③ '그림자의 반복', '지성의 방해'라는 표현은 플라톤의 예술관을 반영하는 전형적 관점이다.
- ④ 인간 욕망의 모사라는 관점은 플라톤의 이데아 중심 철학과 충돌은 없으며, 오히려 '모사'라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어 정면 대립으로 보기 어렵다.
- ⑤ 실재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이 교육적으로 제한적 가치를 지닌다는 입장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일부 예술을 검열하되 교육에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맥락과 연결된다.

50번

문항 유형: 보기 내용 부정 판단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보기의 글쓴이는 낙서가 제도적 맥락 안에서 작품으로 '위치 전환'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술의 구성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④는 이 경험을 '예술이 실재를 구성한다는 관점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 지문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오답 풀이

- ① '기술보다 해석 구조'라는 관점은, 글쓴이가 낙서를 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 ② 시각적 아름다움 외의 기준으로 예술을 평가하게 되었다는 진술은 글 마지막 문장에서 유추된다.
- ③ 해석 참여에 대한 인식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는 대목과 연관된다.
- ⑤ '관람자의 인식 구조에 반응하게 만드는 계기'는 글쓴이의 인식 변화와 지문이 강조하는 예술의 기능이 연결되는 지점이다.

51번

문항 유형: <보기> 사례 비교 판단
정답: ①

■ 정답 풀이

① 보기의 벽화 사례는 초기에는 미적 기준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공동체의 기억과 감정을 구성하는 장치로 전환되었다. 이는 지문에서 말하는 예술의 실재 구성성과 제도 맥락, 인식 구조의 변화 유도 기능과 일치한다.

■ 오답 풀이

- ② 보기는 개인 감정 중심이라기보다, 공동체의 해석 및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형성되므로 부적절하다.
- ③ '자율성만으로 정당성 확보'는 보기와 지문 모두가 부정하는 관점이다.
- ④ 보기의 예술은 감정적 위안만이 아니라, 기억의 구조화와 의미 구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⑤ 지문과 보기는 기능과 양상이 다를 수 있지만, 상호 보완적인 예술의 층위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동일 선상 해석 불가'는 지나친 단정이다.

독서 빠른 정답

④	②	④	④	③	⑤	⑤	②	④	⑤
④	③	④	⑤	①	④	①	③	③	②
④	②	⑤	④	②	②	④	④	②	①
①	④	②	①	④	②	⑤	③	⑤	②
③	①	⑤	②	④	③	③	③	①	④
①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 후기, 정(鄭) 땅의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북곽 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마흔의 나이에 손수 교정한 책이 만 권, 구경(九經)의 뜻을 부연해 다시 지은 책이 일만 오천 권에 달했다. 천자는 그의 의(義)를 높이 평가하였고, 제후들도 그의 명성을 우러러보았다.

그 고을 동쪽에는 동리자라는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다. 천자는 그녀의 절개를 칭송하고, 제후들 또한 그녀의 어짐을 흠모하였다. 그래서 고을 주변 몇 리의 땅을 그녀에게 하사하여 ‘동리과부지려(東里寡婦之間)’라 이름 지었다. 동리자는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성을 지니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아들이 각기 이렇게 말하였다.

“강 북쪽에선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별이 반짝인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어찌 북곽 선생과 아주 닮지 않았는가?”

다섯 아들은 번갈아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정중히 말했다.

“선생님의 덕을 오래전부터 사모해 왔습니다. 오늘 밤엔 선생님께서 읽으시는 글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에 북곽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 시를 읊었다.

“병풍엔 원앙이 있고, 반딧불은 반짝인다. 가마솔과 세발술은 무엇을 본떠 만들었는가. 흥겹도다.”

그 말을 들은 다섯 아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다.

“『예기』에 ‘과부의 집 문은 함부로 들어서지 않는다’ 했으니, 북곽 선생 같은 어진 분이 설마 그런 일을 하겠느냐?”

“하지만 들리는 말로는 이 고을 성문이 허물어져 여우가 구멍을 냈다지.”

“그 여우란 놈, 천 년을 묵으면 사람 흉내를 낸다 하더군. 그 놈이 북곽 선생을 흉내 내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고는 다시 말하였다.

“여우의 갓을 얻으면 천금을 얻고, 신을 얻으면 그림자도 감춘다 하며, 꼬리를 얻으면 모두에게 사랑받는다지. 그 여우를 잡아 나눠 가지는 게 어떻겠느냐?”

결국 다섯 아들은 어머니의 방을 에워싸고 들이쳤다. 북곽 선생은 깜짝 놀라 달아났고,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까 염려하여 한 다리를 목 뒤로 얹고 도깨비처럼 춤추고 웃으며 도망쳤다. 그러다 별판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안엔 똥이 가득하였다. 겨우 기어 올라오니, 이번엔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미간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더니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에이, 그 선비가 구리구나.”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범 앞에 엎드려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았다. 고개를 들고 아침 섞인 말로 간청하였다.

“범님의 덕이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고, 장수는 그 위엄을 따릅니다. 신룡과 짝이 되어 바람과 구름을 일으키시니, 제가 그 바람 아래 서 있나이다.”

범은 노하여 꾸짖었다.

“다신 가까이 오지 마라. 예전에 들으니 ‘유(儒)는 유(誣)다’고 하더니, 과연 그러하구나. 네놈은 온갖 천하의 악명을 다 모아 내게

덧찍우고, 이제 와 아침을 하니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세상의 이치는 다 같아, 범의 성품이 악하다면 사람의 성품도 악한 것이요, 사람이 선하다면 범도 선한 법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오류이니 사강이니, 늘 입에 달고 다니지만, 도리어 범으로 코 베이고 발 잘리고 낙인찍힌 자들이 너희 중에 얼마나 많으냐? 그래도 날마다 형틀을 만들어야 할 정도니, 악행이 그칠 줄 모르지. 그에 비해 범의 집엔 형벌도 없고 법도 없다. 범은 풀과 나무를 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으며, 술이나 젓, 알 같은 건 차마 입에 대지 못한다. 산에서는 노루나 사슴,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잡는다. 그러나 음식으로 인해 송사를 벌인 적은 한 번도 없으니, 이 어찌 광명정대함이 아니겠는가? 너희들은 범이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땐 침묵하다가, 말이나 소를 먹으면 원수라 외친다. 그 이유는 말과 소가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도 정작 너희는 그 말과 소의 공도 무시하고 푸줏간을 가득 채워 날마다 잡아먹는다. 심지어 우리들의 노루와 사슴까지 토색해 들과 산에서 굶게 하지 않았느냐? 하늘이 공정하다면 누가 누구를 먹어야 하겠느냐? 도둑은 남의 것을 취하고, 적은 사람을 죽인다. 너희는 밤낮없이 돌아다니며 강탈을 일삼고, 심지어 돈을 형이라 부르며, 벼슬을 얻겠다고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느냐? 옷과 밥을 위해 메뚜기, 누에, 벌, 개미까지도 수탈하며, 그 알을 젓 닭가 조상께 제사 지내는 너희가 과연 인륜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하늘이 만물을 기른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는 스스로만 인간이라 높이고 다른 존재들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나 범과 사람은 하늘이 기른 같은 피조물이며, 그 선악을 가르치면 벌집을 노략질하고 누에를 죽이는 너희야말로 가장 큰 도적 아니겠느냐? 범이 표범을 잡지 않는 이유는 같은 족속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다. 범이 사슴과 노루를 먹는 횡수보다 너희가 그것들을 먹는 횡수가 더 많고, 범이 사람을 먹는 수보다 너희가 사람을 잡아먹은 역사가 더 길지 않느냐? 지난해 관중이 가물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고, 그보다 앞서 산동에 홍수가 나도 마찬가지였다. 춘추시대엔 열일곱 번 은덕을 쌓기 위해, 서른 번 원수를 갚기 위해 전쟁을 벌였고, 그 피가 천 리를 적셨다. 하지만 범은 그러한 재난을 모르고 살아가며, 원수도 없고 은혜도 잊은 채 미움을 사지도 않는다. 무당이나 의원의 피에 속지 않으며, 이익을 좇아 병들지도 않는다. 이게 바로 범의 어짐이요, 성스러움이다. 범의 문양은 세상에 ㉠ 문(文)의 상징이 되고, 병장기가 없으나 ㉡ 무(武)의 상징이 된다.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 새겨 ㉢ 효(孝)를 기리며, 하루 사냥한 고기를 까마귀, 솔개, 개미 등과 나누니 이는 ㉣ 인(仁)의 실천이다. 고자질한 자나 병든 자, 상복 입은 자는 먹지 않으니 ㉤ 의(義)도 갖추었다. 그런데 너희는 인자하지 않다. 그물, 함정, 창과 도끼, 화포까지 만들어 생명을 무차별로 해치지 않느냐? 털을 아교로 붙여 칼날을 만들고, 날카롭고 예리한 무기를 조제해 귀신도 울게 하니, 너희보다 잔인한 자가 또 어디 있겠느냐?”

- 박지원 「호질」 -

52.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범의 문양이 단순한 장식이 아닌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파악한 내용으로, 외형을 통해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다는 관점에서 이해된 것이겠군.
- ② ㉡는 병장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의 행위가 위엄을 드러내는 점에 주목하여, 실질보다 형상이 주는 상징에 집중한 해석이겠군.
- ③ ㉢는 효를 실천하는 범의 모습에서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의 의미를 찾았으므로, 인간의 윤리적 가치가 동물에게도 구현된다는 관점에서 읽힌 것이겠군.
- ④ ㉠은 범이 동료와 사냥감을 나누는 행위에서 공동체 윤리를 발견한 것으로, 이는 인간 사회에서의 정의(義)를 상징한다고 본 것이겠군.
- ⑤ ㉢는 범이 병든 자, 상복 입은 자를 피해 먹지 않는다는 행위에서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엿보이므로, 일관된 도덕 원칙을 지키는 태도와 관련하여 읽힌 것이겠군.

5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의 무늬는 단순한 피부의 문양이 아니라, 글월 ‘문(文)’과 관련한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 ② 범은 병장기가 없음에도 행위로써 무(武)의 위엄을 드러내는 존재로 제시된다.
- ③ 범이 사냥한 고기를 다양한 동물들과 나누는 행위는 인(仁)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서술된다.
- ④ 효(孝)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범과 까마귀가 함께 등장하며, 이는 가족애를 상징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⑤ 범은 병든 자, 상복 입은 자, 고자질한 자를 피해 먹으며, 이를 통해 의(義)를 실천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54.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작품 「호질」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내면의 도덕성과 사회적 위선을 드러내는 풍자적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인물의 외적 면모와 내적 윤리의 괴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진정한 도리를 상징하는 존재들과의 비교를 통해 주제를 이해해보자.

- ① 범의 행위를 인간보다 더 도덕적인 존재로 설정한 것은, 양반의 위선적 삶과의 대조를 통해 비판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 ② 병장기가 없음에도 위엄을 지닌 범을 통해 겉치레만을 중시하는 인간 무사(武士) 계층의 허위를 풍자하고 있다고 해석하였다.
- ③ 병들었거나 상을 당한 자를 해치지 않는 범의 태도는, 인간 사회에서의 도리보다 더 고귀한 도덕성을 가진 존재로 범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 ④ 호랑이의 무늬를 문(文)이라 해석한 것은, 글을 아는 양반과 지식인의 고결함을 범이 체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파악하였다.
- ⑤ 인간보다 짐승이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작가는 인간 사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았다.

5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호질」은 박지원이 현실의 양반 사회를 풍자하기 위해 쓴 한문 소설이다. 양반의 허위 도덕성을 동물의 입을 빌려 비판함으로써 진정한 도리는 외면당하고 있으며, 인간보다 도덕적으로 고결한 짐승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주제를 드러낸다. 작품에서 호랑이는 단순한 맹수가 아니라 도덕적 판단과 언행의 일치를 지닌 존재로 형상화된다. 또한 양반의 자아도취적 언행은 그의 이기성과 위선을 부각시키는 장치로 활용된다.

- ①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 새겨 효를 기리는 모습’은 짐승에게도 효심이 있음을 보이며, 이는 양반의 도덕성과 대조된다.
- ② ‘병자나 상을 당한 자는 먹지 않는 범의 행동’은 인간보다 우월한 도덕 기준을 지닌 존재로 범을 그린 장면으로, 이는 풍자의 중심이다.
- ③ ‘사냥 고기를 개미와 솔개에게까지 나누는 범의 행위’는 지나치게 이상화된 설정으로, 오히려 풍자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 ④ 호랑이의 문(文)과 무(武)는 외면적 상징에 그치지 않고 인간 사회의 위선적인 계급적 권위를 비판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 ⑤ 인간이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반면, 범은 문무효인의 덕을 고루 갖춘 존재로 제시되어 양반의 허위와 대조되는 윤리적 기준이 된다.

[56~6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을날
빈손에 얹힌 작은 꽃씨 하나!
수많은 잎과 꽃, 찬란한 빛깔이 사라진 뒤
오직 한 알의 꽃씨 속에 가을이 모여든다.

여름 오후의 눈부신 빛,
핏빛 꽃들이 피워내던 걱정과
뜨거운 노을의 입김이
묵직한 무게로 응축된 것이리라.

슬픔의 껍질을 모아 불태우면
갑자기 뜰이 넓어지는 가을날,
마음 깊은 곳에서도
조용히 여물어 가는 빛나는 외로움이 있다.

오늘, 나는 꽃씨 하나를 골라
기나긴 기다림의 창가에 두고
화려했던 어제를 조용히 묻는다.

- 문병란, 「꽃씨」 -

(나)

낮선 곳에서 느껴지는 이 쓸쓸함, 여수*에 잠기면
내게는 작은 희망조차도 숨어 버린다.
늦방울처럼 흔들리는 이 슬픈 마음이어!

요지경 속처럼 좁은 세상을
이상스러운 세월이 지나며 보여 주고,
나는 기억이 무성한 숲속에 홀로 선다.

요지경을 메고 떠도는 늙은 장돌뱅이,
그의 누더기 같은 꿈처럼
기워진 때 묻은 추억들.
신뢰할 수 있는 현실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는 거리의 부랑자처럼
현실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 믿고 있었다.

고단한 떠돌이의 삶 속에서
잠시 쉬는 그 순간이면,
달팽이 껍질 틈에서 문밖을 내다보는
얄미운 그리움이어! 노스타르자*!
너무나 무기력한 이 마음으로
오, 너는 무엇을 휘젓고 있는 것이냐!

- 오장환, 「여수」 -

*여수: 객지에서 느끼는 쓸쓸함

*노스타르자: 노스텔지어(Nostalgia), 지난 시절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

바위 옆 우뚝 선 소나무 그 늙은한 모습이 참으로 반갑도다.
비바람과 서리를 겪고도 전혀 시들지 않으니,
어찌하여 봄빛을 빌려 변하려 하지 않는가.

1수

동쪽 울타리에 심은 국화, 그 귀함을 누가 알랴.
봄의 화려함을 버리고, 차가운 서리 속 홀로 피었으니,
아아, 맑고 높아 청고한 이 벗이 혹여 자연 아닌가 싶구나.

2수

꽃은 무수히 많지만, 내가 매화를 심은 까닭은
눈 속에서 피어나 하얀 눈과 어우러지는 그 모습이 귀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은은한 그 향기까지 어찌 귀하지 않으랴.

3수

눈 내린 날 창을 열어 대나무를 바라보니,
온갖 꽃은 자취 없고 오직 대숲만이 푸르르도다.
맑은 바람을 맞이하여 어찌 그리도 유유자적 흔들리느냐.

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5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상화된 대상을 통해 내면 정서를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 ② 공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여 극적인 반전을 이끈다.
- ③ 현실 비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대화체 어휘를 적극 활용한다.
- ④ 상반된 정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효과를 준다.
- ⑤ 초월적 존재를 직접 호명하여 갈등의 해소를 유도하는 구조를 가진다.

57.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은 생명의 축소된 형태에 계절의 정서가 응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② ‘빛나는 여름의 오후’는 시간적 배경이라기보다 대조적 이미지로, 가을의 고요함을 부각하는 데 사용된다.
- ③ ‘비애의 껍질을 모아 불태워 버리면’은 감정의 정화 과정을 상징하며, 내면 정서의 승화를 의미한다.
- ④ ‘오늘은 한 알의 꽃씨를 골라’는 현실의 실존적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지적 행위를 나타낸다.
- ⑤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는 과거를 부정하고 생명의 유한성을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드러낸다.

58. (나)의 ‘요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공간으로, 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를 은유한다.
- ② 현실로부터의 도피처로 기능하며, 시인이 의지하는 정신적 안식처이다.
- ③ 세상이 보이는 좁고 왜곡된 틀로, 시인이 현실 인식을 비판적으로 자각하게 되는 계기이다.
- ④ 장돌뱅이의 꿈과 함께 반복되며, 시인의 기억 속 행복했던 시절을 상징한다.
- ⑤ 지나간 유년기의 세계를 함축하며, 현재의 삶을 초월하게 만드는 정서의 매개이다.

59.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신의의 「사우가」는 사군자인 소나무, 국화, 매화, 대나무를 각각 자연 속 고결함과 절조의 상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시인은 이들을 벗(友)으로 삼아 인간의 속됨과 변덕에서 벗어난 고아한 정신 세계를 노래한다. 시조 특유의 상징과 반복, 자연 이미지와 내면의 동일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 ① ‘엇지타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느냐’는 자연물의 변함없는 성질을 인간의 미덕으로 치환하고 있다.
- ② ‘춘광을 변폐하고 엄상에 혼자 뛰니’는 군자의 절개를 국화의 개화 시기로 구체화한 구절이다.
- ③ ‘눈 속에 꽃이 뛰여 한 빛인 것이 귀하도다’는 외형보다 향기를 중시하는 삶의 미학을 강조한다.
- ④ ‘온갖 꽃 간데 없고 대숲이 푸르러세라’는 시각적 이미지 대비를 통해 대나무의 고결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엇디한 청풍을 반겨 흔덕흔덕 하느냐’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숲의 태도를 고요한 교감으로 해석하고 있다.

60.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뢰할 만한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는 현실 인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자조적 의지를 반영한다.
- ② ‘시정배와 같이 현실을 모르며’는 자기를 낮추는 진술로, 현실 도피적 태도를 정당화하는 장치이다.
- ③ ‘문밖을 내다보는 알미운 노스타르자’는 과거 회상에서 비롯된 정서를 불편하고 견디기 어려운 감정으로 그린다.
- ④ ‘요지경을 메고 다니는 장돌뱅이의 꿈’은 유랑자의 자유로운 정신을 상징하며 시인의 동경을 내포한다.
- ⑤ ‘뼈 없는 마음’은 현실 감각을 잃은 몽상적 감성으로, 내면 풍경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6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시인의 내면 정서가 외적 사물에 투사되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된다. (가)에서는 꽃씨에, (나)에서는 요지경과 장돌뱅이에 시인의 정서가 이입되며, 이를 통해 각각 외로움과 불안한 자의식이 드러난다. 다만, (가)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내면의 정화, (나)는 현실 부조리에 대한 자각과 회의라는 점에서 감정의 귀결에 차이를 보인다.

- ① ‘빛나는 외로움’은 외면의 고요함 속에 내면을 성찰하며 숙성되는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가)의 태도와 부합한다.
- ② ‘요지경 속으로 나오는 좁은 세상’은 대상의 상징을 통해 현실 인식의 비판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나)의 태도와 일치한다.
- ③ ‘기인 기다림의 창변에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는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감정적 분노의 표출로, (가)의 정서와 어울린다.
- ④ ‘나는 추억이 무성한 숲속에 섰다’는 기억의 이미지가 현실 감각과 혼재되는 경험을 의미하며, (나)의 불안한 내면과 연결된다.
- ⑤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자의식의 혼란을 고백하는 구절로, (나)의 중심 정서와 긴밀히 연관된다.

[62~6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년 가을,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성익은 집에 들어서자 사랑 마루에 웬 누르통통한 지우산과 검은 지까다비 한 켤레가 놓인 것로부터 눈이 미치었다. 한 손에 찬거리를 사든 길이라 안으로 들어가 아내에게 들은즉, 자기는 처음 보는 어른인데, 아이들더러, 나두 너희 할아버지야 하는 것을 보아, 아마 당신 아저씨뻘 되는 양반인 게라고 하였다. 옆에서 어린것 하나는, 아주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야 하였다. 나와 뵈니, 정말 성익도 어렸을 때는 무서워하던 영월 아저씨였다.

성익은 참 뜻밖이요 오래간만에 뵈는 아저씨였다. 혼인한 지 십 년이 넘는 성익의 아내는 이번이 처음이도록 여러 해 동안을 뵈 수 없던, 생사조차 모르던 영월 아저씨였다.

젊어 영월(寧越) 군수를 지내어 ‘영월댁’이라, ‘영월 영감’이라, ‘영월 아저씨’, ‘영월 할아버지’로 불리어지는 인데, 키가 훗칠하고, 이글이글 타는 눈방울이 늘 술취한 사람처럼 화기 띤 얼굴에서 번뜩일 뿐 아니라 음성이 행길에서 들터라도 찌렁찌렁 울리는 데가 있는 어른이어서, ‘영월 할아버지 오신다’ 하면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었다. 위엄은 아이들이나 하인배에뿐 아니라 그분과 동년배요 항렬로는 도리어 위 되는 이라도 영월 영감이 오는 눈치면 으레 물었던 담뱃대를 뽑아 들고 길을 비

키었다.

심경에 큰 변화를 일으킨 듯, 눈을 팔고 발을 팔고 가대와 종중(宗中)의 위토(位土)까지를 잡혀 쓰면서 한동안 경향 각지로 출입이 잦았었다.

그러나 무슨 이권이나 세도를 얻으려 다니는 것 같지는 않다. 가 한번은 그런 예사로운 출입으로 나간 것이 소식이 끊이기를 십오륙 년, 대소가가 모두 궁급하게 여기던 것조차 이제는 지쳐 버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서울서 문득 찢어진 지우산과 지까다비로 조카 성익의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간 어디 가 계셨습니까?”

“일소부주(一所不住)지, 안 당긴 데 있나…….”

음성이 높은 것, 우묵하게 꺼지기는 하였으나 그 푸른 안정이 쏘아나오는 눈, 그리고 저녁상에서 성익은 갈비를 다시 구워 올 것도 없게 실패쪽처럼 벗겨 자시는 것을 보면 그 식사나 기력의 정정함도 옛 풍모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마와 눈시울에 잘고 굵은 주름들은 너무나 탄력을 잃었다. 더구나 머리와 수염이 반이 넘어 흰 것을 뵈고는, 가슴이 뿌지지했다.

“아저씨두 인전 반백이나 되셨군요?”

“반백은 넘었지. 허!”

하고 그 수염을 한번 쓸어 보면서,

“빈발여하백(鬢髮如何白)고 다인적학로(多因積學勞)라더니 내 백발은 적학로도 아니고…… 허허!”

하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조카가 이것 저것 물었으나 별로 대답이 없이 손자 되는 어린것의 머리만 쓰다듬다가,

“세월밖에 해일 게 없구나! 대답할 게 없으니 아무것두 묻지 말아…… 내가 다녀갔단 말 시골집에들 알릴 것도 없구…… 네 게 온 건 돈 얼마 변통해 쓸까 하구 왔는데…….”

하였다. 성익은 그래도 그 동안 대소가 소식들부터 알려 드리고 나서,

“얼마나 쓰실 일입니까?”

“한 천 원 가까이 뵈으면 좋겠다.”

성익은 얼른 마루 아래 놓인 이 아저씨의 지까다비 생각이 났다. 이분이 금광을 하시는 것이나 아닌가? 하였으나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말을 먼저 받았다. 아무튼 비록 행색은 초췌할 망정 생사조차 알리지 않다가 십여 년 만에 찾는 조카에게 자기 개인 밥값 같은 것이나 궁해서 돈 말을 할 영월 아저씨로는 믿어지지 않았다. 성익은 할 수 없이 무리를 해서 모아 온 고완품(古玩品)에 손을 대었다. 고려청자 찻종 하나와 단계석(端溪石) 벼루 하나를 이튿날 식전에 들고 나가 천 원은 못다 되고 칠백 원을 만들어다 드리었다. 돈이 칠백 원이란 말만 들었을 뿐, 영월 영감은 헤어 보지도 않고 빛 낚은 양복 조끼 안주머니에 넣더니 저녁때가 가까웠는데도 떠나야 한다고 나섰다. 비는 그저 지적지적 내리었다.

“애장품을 없애 줘 미안타. 그러나 그런 건 누가 보관튼 보관돼 갈 거구…….”

하면서 마당에 내려 화단에서 비에 젖는 고석을 잠깐 눈주어 보더니,

“어디서 구했니?”

“해석입니다. 충남 어느 섬에서 온 거라는데 파는 걸 사왔습

니다.”

“넌 너의 아버님 너무 닮는구나! 전에 너의 아버님께서 고석을 좋아하셔서 늘 안협(安峽)으로 사람을 보내 구해 오셨지…… 그런데 난 이런 처사취미(處士趣味)엔 대반대다.”

“왜 그러십니까?”

“더구나 젊은이들이…… 우리 동양 사람은, 그 중에두 우리 조선 사람이지, 자연에들 너무 돌아와 걱정이야.”

“글썸을시다.”

“자연으루 돌아와야 할 건 서양 사람들이지. 우린 반대야. 문명으루, 도회지루, 역사가 만들어지는 데루 자꾸 나가야 돼……”

이렇게 영월 영감은 목소리가 더 우렁차지며 얼굴이 더 붉어지며 가을비에 이끼 끼는 성익의 집 마당을 부산하게 나섰다.

돈을 언제 갚는단 말도, 어디 와 있다는 말도, 성익도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전혀 소식이 없다가 꼭 돌이 되어, 요 전달 하순이었다.

하루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성익에게 메신저 보이가 왔다. 박대하란 환자를 대신해 쓴다 하고 곧 좀 외과 진찰실로 와달라는 것이었다. 박대하란 영월 영감이다. 성익은 곧 달려갔다. 간호부가 가리키긴 하나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얼굴 온통이 붓대 멍치가 되어 진찰대에 누워 있었다. 멀경게 부픈 입술이 번질번질한 약을 바르고 콧구멍과 함께 숨을 쉴 정도로 내어 놓아졌을 뿐, 눈까지 약칠한 가제에 덮여 있는 것이다. 송장이 아닌가 싶었다.

“이분이?”

“네, 박대하 씨라고요. 광산에서 다치셨대요. 입원을 허실 텐데 시내에 보증인이 있어야니까요.”

하고 간호부는 환자의 귀 가까이로 가더니,

“불러 달라시던 분 오셨어요.”

하였다. 환자의 육중한 입술이 부르르 떨리었다. 성익은 덤씩 환자의 손을 끌어 쥐었다. 뜨거웠다.

“성익이냐?”

분명히 영월 아저씨였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뭘, 허, 답답해라…… 대단친 앓구…… 자꾸 보증인인갈 세래널 알렸다.”

“다치신 텐 얼굴뿐입니까?”

“그럼.”

“어디서 다치셨는데, 누구 같이 온 사람두 없습니까?”

간호부가 복도로 나와 같이 온 사람을 가리켜 주었다. 우중충한복도에 섰는 흙물이 시뻘건 동저고릿바람의 장정이었다.

“당신이오?”

“네.”

남포를 놓는데, 세 방을 한꺼번에 놓는데, 심지어 하나가 중간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 그것마저 들어가 대려 놓는데 먼저 타들어간 것이 의외에 빨리 터졌다는 것이다.

“광산은 어디요?”

“거기가양평따입지요. 그런데 과히 오래 가든 않는답니까?”

“글썸, 아직 모르겠소.”

하고 성익은 그제야 의사에게로 왔다. 머리를 돌에 맞아 뇌진탕을 일으켰으나 반 시간도 못 돼서 정신을 차렸다는 정도니까 께맨 자리만 아물면 뇌엔 별일이 없을 것이요, 얼굴은 전면적으로 매연과 모래에 타박상을 받았으나 큰 상처는 없고, 안과에서 보았는데 눈도 동공은 상하지 않았으니까 중증의 결막염 정도니까 며칠 치료하면 뜰 수 있으리란 것이다.

- 이태준, 『영월영감』 -

6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익은 “비록 행색은 초췌할망정 … 돈 말을 할 영월 아저씨로는 믿어지지 않았다”에서, 영월 영감의 요청을 그의 과거 위엄과 대비시켜 당혹해 한다.
- ② 영월 영감이 “세월밖에 헤일 게 없구나! … 아무것도 묻지 말아”라 말하는 것은 자신의 공백기를 해명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③ “우리 동양 사람은 … 자연에들 너무 돌아와 걱정이야”라는 발언은 자연 회귀적 삶의 가치를 긍정하는 영월 영감의 인식을 보여 준다.
- ④ 영월 영감의 등장은 가족에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던 친족의 귀환’이라는 충격을 안겨 준다.
- ⑤ 영월 영감이 병원에서 다시 등장하는 장면은, 인물이 현실에서 겪는 삶의 추락을 비극적으로 부각한다.

63. 윗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과 성격 묘사를 통해 과거의 위세와 현재의 몰락을 대조적으로 드러낸다.
- ② 영월 영감의 직접적 서술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고한다.
- ③ 사건 전개는 성익의 회상적 독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된다.
- ④ 화자는 영월 영감을 일관되게 긍정적 인물로 제시하며, 비극성을 완화한다.
- ⑤ 인물 간 갈등을 대사보다는 외부 사건과 상황 묘사에 집중하여 드러낸다.

64. 인물의 태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익은 “얼른 마루 아래 놓인 ... 금광을 하시는 것이나 아닌가?”에서 영월 영감의 의중을 합리적으로 추측하려 하지만 끝내 묻지 않는다.
- ② 영월 영감은 성익에게 돈을 요구하면서도 “애장품을 없애 줘 미안타”라 하여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지닌다.
- ③ 성익은 “전혀 소식이 없다가 꼭 돌이 되어”라는 표현에서, 영월 영감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단정한다.
- ④ 영월 영감은 처사적 취미를 부정하면서 “문명으루, 도회지루”라 주장하여 근대적 가치관을 내비친다.
- ⑤ 성익은 병원에서 영월 영감의 손을 잡으며 “뜨거웠다”라 묘사된 감각을 통해 인간적 연민을 드러낸다.

65. <보기>는 영월 영감의 삶을 바라보는 비평가들의 견해이다. 이를 지문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영월 영감의 몰락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근대 사회 속에서 구세대적 권위가 붕괴되는 과정의 단면을 보여 준다.”

ㄴ. “그의 ‘문명 강조’ 발언은 당대 지식인 내부의 근대 지향과 전통 고수의 갈등을 함축한다.”

ㄷ. “그가 돈을 요구하는 장면은, 성익과의 친족 관계보다 금전적 이해관계가 우선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ㄹ. “영월 영감의 광산 사고는, 그의 삶을 재건하려는 의지가 좌절되는 극적 장치로 기능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ㄱ, ㄹ

[66~7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 말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 아침에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 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이곡, 『차마설』 -

(나)

내 누님에게는 김이홍이라 하는 아들이 있다.

이홍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주 심했으니 어떤 물건을 보고선 열에 아홉을 잊어버렸고 일을 하게 되면 열에 열을 잊어버리곤 했다.

아침에 한 일이라도 저녁이면 벌써 혼미해졌고 어제 한 일이라도 오늘이면 기억하지 못했다.

이홍은 나에게 하소연했다.

“제 건망증은 아무래도 병인가 봅니다. 제게 있어 작게는 어떤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크게는 남을 거느리지도 못하게 하며, 말을 실수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동을 하더라도 무언가를 빠뜨리고는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건망증이 빌미가 되더군요. 제 건망증을 고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천금인들 아끼겠습니까? 저는 천리 길도 멀다 하지 않고 찾아갈 것입니다.”

이에 나는 타이르며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네게 병이 되고 잊지 않는 것이 네게 도움을 주는 것만 볼 뿐이고, 잊지 않는 것이 네게 걱정을 끼치고 잊는 것이 네게 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네가 건망증을 굳이 고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잊어서 드디어 크게 잊는 지경에 이르기를 바란다. 정녕 네가 천금을 걸고서 천하의 건망증 치료사를 찾아 치료하고자 한다면 나는 왼손으로는 네 팔꿈치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는 네 팔뚝을 붙잡아 치료를 막겠다.”

그러자 이홍은 휘둥그레하며 말했다.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잊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잊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

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라고 지자. 그렇다면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잇는 사람에게는 잇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천하의 걱정거리는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잇어도 좋을 것은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는 데서 나온다. 눈은 아름다움을 잇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잇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잇지 못하고,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잇지 못한다.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잇지 못하고, 집안이 가난하건만 재물을 잇지 못하며, 고귀한데도 교만한 짓을 잇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잇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잇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자가 되면,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잇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잇어버리며, 부모를 잃고서는 슬픔을 잇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잇어버린다.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잇고, 나아가고 물러날 때 예의를 잇으며,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제 분수를 잇고, 이해의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잇는다.

먼 것을 보고 나면 가까운 것을 잇고, 새것을 보고 나면 옛것을 잇는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가릴 줄을 잇고, 몸에서 행동이 나올 때 본받을 것을 잇는다. 내적인 것을 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게 되고,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기 때문에 내적인 것을 더더욱 잇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잇지 못해 별을 내리기도 하고, 남들이 잇지 못해 질시의 눈길을 보내며, 귀신이 잇지 못해 재앙을 내린다. 그러므로 잇어도 좋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잇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꿀 능력이 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잇어도 좋을 것은 잇고 자신의 잇어서는 안 될 것은 잇지 않는다.

이홍, 너는 성품이 강직하고 마음이 맑으며 뜻이 단정하고 행실이 방정하다. 그렇기에 잇어서는 안 될 일을, 너는 잠을 자든 깨어있든 잇지 않는다. 잇어도 좋은 것이라면 네가 잇기를 바랄 뿐이고 네가 잇지 않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너를 병들게 한다고 말한 건망증이 심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네게 복을 가져다준다고 말한 건망증이 풍성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다. 천금의 보물을 싸들고 천리 먼 곳을 찾아다니며 굳이 건망증을 치료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홍아! 차라리 잇어버려라!”

-유한준, 『잇음을 논함』 -

6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에 대해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곧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하는 일이 적었다’라고 한 것은, 빌린 존재 앞에서 절제된 태도를 드러낸다.
- ② 화자가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라고 한 것은, 권세를 제 것인 듯 휘두를 때의 방자함을 풍자하는 장치다.
- ③ 화자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삶의 소유가 본질적으로 의탁된 것임을 폭로한다.
- ④ 화자가 맹자의 말을 인용하여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 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라고 한 것은, 자신의 논지를 고전적 권위에 기대어 강화한다.
- ⑤ 화자가 임금·신하·아비·지아비·상진을 차례로 나열하며 각자의 ‘빌린 것’을 지적하는 것은, 빌림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영구 소유가 가능함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67.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가 이홍에게 “나는 네가 건망증을 굳이 고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은, 망각을 무조건 긍정하기보다 그 분별적 가능성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화자가 ‘잇어도 좋을 것을 잇지 못하고, 잇어서는 안 될 것을 잇는 데서’ 근심이 비롯된다고 한 것은, 망각의 윤리적 함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대목이다.
- ③ 화자가 ‘내적인 것을 잇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잇을 수 없게 되고’라고 한 것은, 내적 수양을 놓칠 때 인간의 외적 욕망이 도리어 커짐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화자가 “나는 네가 천금을 걸고서 천하의 건망증 치료사를 찾아 치료하고자 한다면 ... 치료를 막겠다”라고 한 것은, 당시 유행하던 의학 담론에 대한 풍자적 거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화자가 이홍의 성품을 들어 “성품이 강직하고 마음이 맑으며 뜻이 단정하고 행실이 방정하다”라고 한 것은, 건망증이 병적이기보다 오히려 도덕적 성품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68.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준마를 타고 언덕과 골짜기를 평지처럼 달린다’는 체험이 오만의 위험을 비판하듯, (나)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다’는 서술은 망각의 도덕적 파탄을 경계한다.
- ② (가)와 (나) 모두 일상의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아, 인간 삶의 태도를 반성적 성찰로 확장한다.
- ③ (가)는 권력과 소유의 덧없음을, (나)는 기억과 망각의 분별을 강조하며, 두 글 모두 인간이 집착하는 태도의 허망함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는 외부로부터 ‘빌림’의 조건이 부여되는 데 대한 성찰이, (나)에서는 내적으로 ‘잊음’의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각각 중심을 이룬다.
- ⑤ (가)와 (나) 모두 제도의 모순이나 사회적 구조 개혁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적 실천 지침을 제공한다.

69.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벼슬을 얻었을 때는 권세를 제 힘이라 믿어 오만하였다. 그러나 벼슬을 잃자 집안이 곧 흩어졌다. 또한 재물을 탐하느라 부모의 상을 당하고도 깊이 슬퍼하지 못하였다.

- ① (가)의 맥락에서, 그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다’는 구절이 드러내듯, 빌림을 소유로 착각한 어리석음을 고백한 셈이다.
- ② (나)의 맥락에서, 그는 ‘아버이에게는 효심을 잊어버리고, 임금에게는 충성심을 잊어버린다’라는 대목이 드러내듯,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망각한 도덕적 실패를 드러낸 셈이다.
- ③ (가)와 (나)에 비추어 보면, 그의 오만과 방탕은 빌림의 본질을 망각하고 잊음의 분별을 놓친 결과라 할 수 있다.
- ④ (가)의 맥락에서, 권세의 상실은 단순히 운명의 변덕으로 제시될 뿐 도덕적 성찰과는 무관하다.
- ⑤ (나)의 맥락에서, 부모의 상을 가볍게 여긴 것은 건망증의 생리적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다.

70. <보기>는 한 현대인의 글이다. 이를 (가)와 (나)에 비추어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과 유행을 좇느라 부모와의 대화와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한다. 또한 직위와 재산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며, 잃으면 불행이라 탄식한다.

- ① (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말로, 소유와 지위에 대한 집착의 허상을 지적한다.
- ② (나)는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한다’는 구절을 통해, 유행에 집착하는 인간 심리를 풍자적으로 드러낸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외적인 것에 대한 무조건적 추구가 내적인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비판적 관점을 공유한다.
- ④ (가)는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라는 비유를 통해, 위계 구조 속 권위가 정당하다는 관념을 강화한다.
- ⑤ (나)는 ‘내적인 것을 잊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잊을 수 없게 되고’라는 진술을 통해, 인간 내면의 수양이 외적 삶의 무게를 덜어 준다고 본다.

71. <보기>는 학생들의 감상이다. 이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한 것은? [3점]

<보 기>

학생 A: “(가)는 남의 것을 빌리면서도 그 사실을 망각한 인간의 오만을 경계한다.”

학생 B: “(나)는 모든 망각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기억 자체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학생 C: “(가)는 소유의 상대성을 강조하며, 인간 삶의 겸허함을 촉구한다.”

학생 D: “(나)는 도덕적 분별력을 기준으로 한 기억과 망각의 균형을 강조한다.”

학생 E: “(가)와 (나)는 모두 인간의 윤리적 태도를 내면화하도록 요구하는 성찰적 글이다.”

- ① A - ‘오만을 경계하는 핵심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B - 기억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으며, 오히려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분별을 강조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C - (가)의 중심 메시지는 ‘절대적 소유는 없다’는 자각을 통해 겸허를 촉구하는 것이다. 적절하다.
- ④ D - (나)는 건망증에 대해 윤리적 분별 기준을 적용하여 바라보므로 적절하다.
- ⑤ E - 두 글 모두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통해 도덕적 태도의 내면화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72~7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당신이 가신 뒤로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닭은 당신을 위하느니보다 나를 위함이 많습시다.

나는 갈고 심을 땅이 없으므로 추수가 없습니다.
저녁거리가 없어서 조나 감자를 꾸러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은 ‘거지는 인격이 없다. 인격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너를 도와 주는 것은 죄악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 나올 때에,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는집도 없고 다른 까닭을 겸하여 민적(民籍)이 없습니다.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 인권이 없는 너에게 무슨 정조냐.’ 하고 능욕하려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를 향거한 뒤에, 남에게 대한 격분이 스스로의 슬픔으로 화하는 찰나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 술을 마실까 망설일 때에 당신을 보았습니다.

- 한용운, 「당신을 보았습니다」 -

(나)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漢江)물이 뒤집혀 용솨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鍾路)의 인경(人聲)을 머리로 드리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頭蓋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빠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恨)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오 그날이 와서
육조(六曹)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덩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던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鼓)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 심훈, 「그날이 오면」 -

(다)
비에! 너는 모양할 수도 없도다.
너는 나의 가장 안에서 살았도다.

너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나는 너의 슬픈 울음과 아픈 몸짓을 지니노라.

너를 돌려보낼 아모 이웃도 찾지 못하였노라.
은밀히 이르노니 — ‘행복’이 너를 아주 싫어하더라.

너는 짐짓 나의 심장을 차지하였더뇨?
비에! 오오 나의 신부! 너를 위하여 나의 창과 웃음을 단었노라.

이제 나의 청춘이 다한 어느 날 너는 죽었도다.
그러나 너를 묻은 아모 석문도 보지 못하였노라.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에!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어!

- 정지용, 「불사조」 -

72. (가)~(다)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극한 상황에서 발견한 ‘당신’을 통해 주체의 내적 각성을 드러낸다.
- ② (나)는 민족 해방의 ‘그날’을 염원하며 개인의 희생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한다.
- ③ (다)는 비애를 ‘불사조’에 비유하며, 고통을 초월한 정신적 승화를 모색한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현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 ⑤ (다)는 내적 정서를 직접적 감각 이미지로 환유하여 고조된 서정성을 드러낸다.

73.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적 없는 자는 인권이 없다’는 구절은 주체가 역사적 좌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표상한다.
- ②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라는 진술은 초월적 존재에 귀속할 것인지, 역사적 투쟁에 동참할 것인지를 갈등을 드러낸다.
- ③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습니다’는 감상적 자기연민에 빠진 화자의 무력한 정서를 형상화한다.
- ④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는 인간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초월적 이념에 의해 정당화됨을 암시한다.
- ⑤ 전체적으로 ‘당신’은 일상적 연애 관계의 상대를 지칭하며, 시대적 상황과는 무관하다.

74.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30년대 한국 문학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배경으로, 저항·낭만·내적 성찰이라는 다양한 서정적 흐름을 드러냈다. 심훈의 시는 민족 해방을 염원하는 혁명적 낭만주의로 평가되며, 한용운은 불교적 사상과 독립운동의 경험을 결합하여 인간 자유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지용은 언어 감각을 바탕으로 내적 정서를 심미적으로 형상화하여 한국 현대 서정시의 한 지평을 열었다.

- ① (가)에서 ‘아아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인 줄을 알았습니다’는 구절은 <보기>에서 말한 ‘불교적 사상과 독립운동 경험의 결합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② (나)에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라는 구절은 <보기>에서 언급한 ‘혁명적 낭만주의’의 낭만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 ③ (다)에서 ‘스스로 불탄 자리에서 나래를 펴는 오오 비애! 너의 불사조 나의 눈물이어!’는 <보기>의 ‘내적 정서를 심미적으로 형상화’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 사회 변혁의 실현 가능성을 제도 개혁담론을 통해 직설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⑤ (다)는 시대 현실을 직접 드러내기보다, 개인적 내면의 정서를 ‘불사조’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승화한 것으로 <보기>의 설명과 부합한다.

[52~55] 문학 1 (연계)

해설

52번

문항 유형: 개념 적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㉔는 범의 사냥감 분배와 관련된 행위로, '사랑과 자비', 즉 **인(仁)**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이를 '정의(義)'에 해당하는 ㉕로 해석하여, 문항 내 보기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게 적용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범주와 어긋나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㉑ 문(文)은 범의 문양과 관련된 상징으로, 단순한 외양이 아닌 도덕적·문화적 의미를 내포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문 내용과 일치한다.
- ② ㉒ 무(武)는 병장기 없이도 위엄을 드러내는 범의 존재를 통해 상징되며, 이는 지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 ③ ㉓ 효(孝)는 효를 기리는 상징으로 범과 원숭이를 함께 새긴 도자기에 나타나며, 짐승도 효심을 지닌 존재로 제시된다.
- ⑤ ㉕ 의(義)는 병자, 상복 입은 자 등을 해치지 않는 범의 판단력에서 드러나며, 일정한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존재로 서술된다. 모두 지문 내용에 부합한다.

53번

문항 유형: 내용 일치/불일치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효'를 상징하는 대상은 지문에서 범과 원숭이이며, 까마귀는 범이 사냥감을 나눠 주는 대상으로서 '인(仁)'의 상징으로 활용된다.
→ 까마귀를 '효'를 상징하는 존재로 본 것은 지문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

■ 오답 풀이

- ① 범의 무늬가 '문(文)'의 상징이라는 설명은 지문에 명확히 드러난다.
- ② 범은 병장기를 갖추지 않았으나 '무(武)'를 상징하는 위엄을 지닌 존재로 제시된다.
- ③ 범이 사냥한 고기를 다양한 생물들과 나누는 행위는 '인(仁)'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설명된다.
- ⑤ 병든 자, 상복 입은 자 등을 먹지 않는 태도는 범의 '의(義)'를

나타내는 구체적 행위로 언급된다.

54번

문항 유형: 비판적 이해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범의 문(文)을 인간의 '지식인의 고결함'과 동일시한 것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본 시각이며 이는 지문 전체의 비판 방향과 모순된다.
→ 본문은 오히려 인간의 도덕적 위선을 비판하고, 범을 더 고결한 존재로 그리기 때문에, 이 선택지는 작품의 핵심 태도와 어긋남.

■ 오답 풀이

- ① 짐승인 범이 인간보다 도덕적인 존재로 그려졌다는 점은 지문 전반의 풍자적 비판 의도와 부합한다.
- ② 병장기 없는 범의 '무'는 무사 계층의 허위와 대조되며, 외형적 위엄과 실질적 가치의 괴리를 풍자한다.
- ③ 병자나 상복 입은 자를 해치지 않는 범의 모습은 인간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며, 작품의 핵심 메시지와 일치한다.
- ⑤ 범이 인간보다 높은 도덕 가치를 실천하는 존재로 제시되며, 인간 사회의 타락을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55번

문항 유형: 주제 기반 평가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범의 사냥감 분배 행위는 지나치게 이상화된 것이 아니라, 작품의 핵심 풍자 장치다. 인간보다 도덕적인 짐승의 모습은 오히려 풍자 효과를 강화하며, 인간의 위선과 대조되어 주제를 부각시킨다.
→ 따라서 '풍자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평가는 부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효'를 상징하는 그릇의 문양은 범과 원숭이이며, 이는 인간과 대비되는 짐승의 효심을 통해 양반의 도덕성을 비판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 ② 병자나 상복 입은 자를 피해 가는 범의 행위는 지문 속 '의(義)'의 상징이며, 인간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존재로 제시된다.
- ④ 문(文)과 무(武)는 외형적 상징을 넘어 인간 사회의 위선적인 계층 질서를 비판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 ⑤ 문무효인의 덕을 고루 갖춘 범은 위선적인 인간 군상과 대비되는 도덕적 존재로 그려지며, 지문 전체의 윤리적 대조 구조와

부합한다.

[56~61] 문학 2 (연계)

56번

정답: ①

■ 정답 풀이

① 세 지문 모두 외적 사물(자연물 등)을 통해 시인의 내면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의 꽃씨, (나)의 요지경 및 장돌뱅이, (다)의 사군자(소나무·국화·매화·대나무)는 모두 상징화된 이미지로 시인의 감정이 투사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암시적 정서 표현이라는 표현상 특징과 일치한다.

■ 오답 풀이

- ② 공간의 변화가 시상의 핵심적 전환 기제로 작용하는 지문은 없다.
- ③ 현실 비판적 태도는 일부 드러나나, 대화체 어휘나 어투의 적극 활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상반된 정서의 병렬은 존재하지만, 그로 인해 의미가 전면 부정되는 구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 ⑤ 초월적 존재를 직접 호명하거나 갈등 해소의 외부 계기가 되는 구조는 어떠한 지문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57번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는 구절은 과거의 찬란했던 순간들에 대한 회상과 정서적 정리를 의미하며, 이는 생의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조용한 내면적 수용에 가깝다. 따라서 고통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지문의 정서 흐름과 어긋나는 이해이다.

■ 오답 풀이

- ① 꽃씨에 계절과 생명의 응축된 의미가 담겼다는 해석은 '오직 한 알의 작은 꽃씨 속에 모여든 가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빛나는 여름의 오후'는 가을과의 대비를 통해 현재의 고요함을 부각하는 장치로 기능하며, 대조적 이미지로 해석 가능하다.
- ③ '비에의 껍질을 모아 불태운다'는 구절은 감정의 정화와 승화를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이다.
- ④ '꽃씨를 골라 기다림의 창변에 두었다'는 구절은 시인이 현실에서 의도적으로 외로움과 정서적 여운을 마주하고자 하는 의지적 행위로 해석된다.

58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요지경'은 '좁은 세상', '이상스러운 세월들' 등의 표현과 연결되며, 시인이 왜곡된 현실 인식을 인식하게 되는 상징적 매개체로 기능한다. 실제로 화자는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이는 비판적 자각의 계기와 연결된다.

■ 오답 풀이

- ① 환상적 공간으로의 이상화는 요지경 자체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 현실 인식의 상징이다.
- ② 요지경은 안식처가 아니라 혼란한 인식과 연결된 이미지이다.
- ④ 장돌뱅이의 꿈은 자유로운 정신이 아니라 누더기처럼 기워진 추억, 즉 고단함의 은유이다.
- ⑤ 유년기 회상 또는 초월적 정서의 매개로 기능하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

59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것이 귀하다'는 구절은 외형적 조화를 의미하며, 은은한 향기의 중요성은 바로 다음 구절인 '그 은은한 향기'에서 따로 강조된다. 해당 선택지는 두 구절의 의미를 혼동하여 통합적으로 해석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소나무가 봄빛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은 외부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고결함을 의미하며, 인간의 미덕과 연결된다.
- ② 국화가 봄의 화려함을 거부하고 서리 속에서 홀로 피는 이미지는 청고한 절개와 연결된다.
- ④ 온갖 꽃이 사라지고 대숲이 푸르다는 대비는 시각적 대비를 통해 대나무의 변함없음과 고결함을 부각한다.
- ⑤ 청풍을 반긴다는 표현은 자연과의 교감을 담은 이미지로, 대숲의 유유자적한 태도와 연결된다.

60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알미운 노스타르자'는 과거 회상에서 비롯된 감정이지만, 그 정서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닌 괴로움과 불편함이 동반된 회상으로 그려진다. 이는 시인이 현재의 현실과 과거를 모두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심리적 혼란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 오답 풀이

- ① 자조적 의지는 드러나지 않으며, 현실 인식의 허무함 자체가 중심이 된다.
- ② 시경배와 같은 묘사는 현실 도피를 정당화하기보다, 현실 인식의 왜곡을 고백하는 표현이다.
- ④ 장돌뱅이의 꿈은 낭만적 동경이 아닌, 고달픔과 지친 현실을 상징한다.
- ⑤ '빠 없는 마음'은 몽상적 감성을 나타내지만, 이를 내면의 순결함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61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화려한 어젯날의 대화를 묻는다'는 표현은 감정의 정리와 회상을 통해 내면의 외로움을 정확히는 태도에 가깝다. 이를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감정적 분노의 표출'로 해석하는 것은 시 전체의 정서와 상반되며, 정서의 흐름을 왜곡한 이해이다.

■ 오답 풀이

- ① '빛나는 외로움'은 시인이 내면 정서를 긍정적으로 숙성시켜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② '요지경 속 좁은 세상'은 부조리한 현실의 은유로, 시인의 인식 변화와 연결된다.
- ④ '추억이 무성한 숲속'은 현실과 기억의 혼재 상태를 보여주는 이미지로, 나 지문의 혼란스러운 내면과 어울린다.
- ⑤ '현실을 모르며 아는 것처럼 믿고 있었다'는 표현은 자의식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낸 핵심 진술이다.

[62~65] 문학 3 (작가 연계)

62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영월 영감은 “자연에들 너무 돌아와 걱정이야”, “자연으로 돌아와야 할 건 서양 사람들이지. 우린 반대야”라고 말하며, 자연 회귀적 삶을 부정하고 도시 문명 중심의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연 지향적 삶의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와는 정반대이므로 부적절한 이해이다.

■ 오답 풀이

- ① 성익은 영월 영감의 담당했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겹쳐지지 않음에 당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② 영월 영감은 자신의 과거를 “세월밖에 헤일 게 없다”며 구체적 설명을 회피함으로써 공백기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④ 지문 전반에서 영월 영감은 가족에게 오랜 실종 끝에 갑작스레 돌아온 인물로 묘사되며, 가족 구성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 ⑤ 병원에서의 등장은 위엄 있던 인물의 몰락한 현재를 보여 주며, 영월 영감의 삶이 비극적으로 전락했음을 강조하는 장면이다.

63번

정답: ①

■ 정답 풀이

① 글에서는 영월 영감의 위엄 있던 과거 모습과, 병원에서 몰락한 현재 모습이 외양 묘사와 성격 대비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이글이글 타는 눈방울”, “푸른 안정이 쏘아나오는 눈” 등 과거 묘사와, 병원에서 “얼굴 온통이 붕대 뭉치”인 현재 모습의 대비는 전개 방식의 중심이다.

■ 오답 풀이

- ② 영월 영감의 직접적 서술보다는 서술자가 제시하는 장면과 성익의 반응을 통해 인물이 구성된다.
- ③ 과거 사건은 성익의 직접 회상이 아닌 서술자 중심의 전지적 시점을 통해 제시된다.
- ④ 화자는 영월 영감을 미화하지 않으며, 모순된 면모를 드러냄으로써 복합적인 인물상을 형상화한다.
- ⑤ 인물 간 갈등은 대사보다는 정서와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외부 사건 중심은 아니다.

64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전혀 소식이 없다가 꼭 돌아 되어”라는 표현은 영월 영감이 너무 오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 그를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고 단정하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성익은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며, 이는 정답 판단의 핵심이다.

■ 오답 풀이

- ① 성익은 영월 영감의 요청에 의구심을 갖지만, “아무것도 묻지 말라”는 말에 따라 끝내 추궁하지 않는다.
- ② 영월 영감은 “애장품을 없애 줘 미안타”라고 말하며, 자존심과 체면을 잃은 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자각과 부끄러움을 표현한다.
- ④ 영월 영감은 “문명으루, 도회지루”라 말하며, 근대적 발전 중심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 ⑤ 병원 장면에서 성익이 그의 손을 “뜨거웠다”고 느끼는 묘사는, 인간적 유대와 연민의 정서를 강조하는 장치이다.

65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영월 영감이 돈을 요구하는 장면은 친족 간의 의리와 체면이 무너진 시대상을 반영하는 측면은 있지만, 금전적 이해관계가 우선됨을 상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영월 영감은 돈을 청하면서 도 민망함을 표현하고, 돈의 사용처나 뒷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해관계 중심의 인물로만 환원시키기는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ㄱ: 영월 영감의 몰락은 그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아닌, 전통 권위가 사회 변화 속에서 무력해지는 시대적 전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ㄴ: 영월 영감의 “문명 강조” 발언은 자연 회귀와 문명 지향 사이의 가치 충돌을 반영하며, 근대 지식인의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 ④ ㄷ: 광산 사고 장면은 영월 영감이 생계를 위한 노동을 이어가던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추락한 모습을 보여 주며, 삶의 재기 시도가 좌절된 사건으로 기능한다.

[66~71] 문학 4 (연계 + 비연계(기출 연관) 혼합)

66번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 화자가 다양한 관계 속 ‘빌림’의 예시를 드는 목적은 영구 소유의 가능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본래 자기 것이 아니며, 이를 망각하고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의 미혹됨을 경계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지의 해석은 지문의 핵심 주제와 정반대이다.

■ 오답 풀이

- ① ‘느린 말’에 대한 절제된 태도는 ‘빌린 것’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준다.
- ② ‘준마’를 탄 경험은 통제할 수 없는 권력을 휘두를 때의 위태로움과 자기 착각을 풍자한다.
- ③ “사람이 가진 것은 어느 것이나 빌린 것”이라는 단언은 소유의 본질을 흔들며, 삶의 조건이 의탁적임을 폭로한다.
- ④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자신의 논지를 고전적 권위를 통해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7번

정답: ①

■ 정답 풀이

① 화자는 단순히 건망증을 긍정하지 않는다. ‘잊음’에도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함을 이홍에게 일깨운다. 이는 단순한 무조건적 찬양이 아닌 윤리적 기준에 따른 망각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②는 지문 내용과 부합하지만, ③~⑤도 타당해 보이는 오답 유도 선지이며, ①이 핵심을 가장 정확히 짚고 있어 정답이다.
- ③ ‘내적인 것을 잊는 데서 외적인 집착이 생긴다’는 진술은 내면 수양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으로 적절.
- ④ ‘치료를 막겠다’는 진술은 과도한 치료 욕망에 대한 풍자로 해석할 수 있다.
- ⑤ 이홍의 성품을 강조하는 부분은 건망증이 도리어 덕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68번

정답: ⑤

■ 정답 풀이

⑤ 두 지문 모두 도덕적·윤리적 성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구체적 사회 제도나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 실천 지침’이라는 표현은 지문 내용에 과도한 확대 해석이며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준마’와 (나)의 ‘망각’ 모두 교훈적 사례를 통한 도덕적 경계로 활용되고 있다.
- ② 일상의 체험(말, 건망증)을 바탕으로 인간 삶에 대한 성찰로 확장한 점에서 유사하다.
- ③ 집착이나 소유·기억의 집념이 허망함을 낳는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 ④ (가)는 외적 소유의 본질을, (나)는 내면의 기억을 중심으로 성찰한다는 구도 역시 타당하다.

69번

정답: ③

■ 정답 풀이

③ 인물의 권력 집착과 도덕적 무감각은 각각 (가)의 ‘소유는 빌림일 뿐’이라는 인식의 부재와, (나)의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자’라는 도덕적 실패에 해당한다. 양 지문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기>의 상황을 적절히 해석한 선지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의 ‘임금이 백성에게서 힘을 빌린다’는 구절은 인물의 권세 오남용에 대한 경계와는 관련 있지만, 그의 고백이라 보기 어렵다.
- ② (나)의 ‘호심을 잊는 자’와 연결은 적절하나, 표현상 자연스러운 해석은 ③이 더 명확하다.
- ④ (가)는 권세의 상실을 단순 운으로 돌리지 않고, 도덕적 성찰의 부재로 본다.
- ⑤ (나)는 건망증을 단순 생리 현상으로 다루지 않고, 분별을 갖춘 윤리적 태도의 문제로 다룬다.

70번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는 ‘임금이 백성에게서 힘을 빌렸다’는 구절을 ‘위계 정당화’로 해석하나, 이 구절은 오히려 모든 권력도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관점을 완전히 오독하고 있다. 지문의 비판적 관점을 무시한 해석이므로 가장 부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소유·지위에 대한 본질적 회의를 드러낸다. 적절.

- ② (나)는 외적인 감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고 있다.
- ③ 두 지문 모두 외적 욕망이 내면을 침식하는 구조를 경계한다.
- ⑤ '내적 수양'이 외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구절로, 적절한 해석이다.

71번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 학생 B의 감상은 지문에 대한 전면적 오독이다. (나)는 망각을 무조건 긍정하지 않고, 오히려 '잊을 것'과 '잊지 말 것'의 분별을 강조한다. '기억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관점은 지문의 핵심과 정면 충돌한다.

■ 오답 풀이

- ① A는 (가)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자기 소유라 착각하는 오만'은 지문 비판의 핵심이다.
- ③ C 역시 (가)의 '소유는 빌린 것'이라는 자각을 기반으로 '겸허함'을 강조한 점이 적절하다.
- ④ D는 (나)의 핵심인 '도덕적 분별'에 근거한 감상으로 타당하다.
- ⑤ E는 두 글의 공통된 지향을 '윤리적 내면화'로 보고 있어 적절하다.

[72~74] 문학 5 (연계 + 비연계 혼합)

72번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가)와 (나)는 공통적으로 시대적 고통과 현실의 부조리를 표현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두 시 모두 현실 비판과 내적 의지 표현에 머물며, 제도 개혁이나 실천적 방안은 직설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선지는 지문의 진술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부정확한 해석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절망의 순간마다 떠올리며 주체의 내적 각성과 정신적 초월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 ② (나)는 민족 해방의 '그날'을 낭만적 상상력과 함께 그리고 있으며, 그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태도를 담고 있다.
- ③ (다)는 고통과 상실의 정서를 '비에'와 '불사조'라는 상징적 이미지로 그려, 정신적 승화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 ⑤ '비에'는 직접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박힌 화살', '날지 않는 새', '불사조' 등의 환유적 감각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서정성을 강화한다.

73번

정답: ②

■ 정답 풀이

② '영원의 사랑을 받을까, 인간 역사의 첫 페이지에 잉크칠을 할까'는
→ 초월적 가치(영원의 사랑)와 역사적 실천(잉크칠, 혁명) 사이에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다. 이는 (가)의 서사적 흐름 속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긴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① '무력감'이 표현되긴 하나, 시 전반은 절망을 극복하고자 하는 내적 투쟁과 각성의 서사로 전개된다.
- ③ '눈물 속에서 당신을 보았다'는 것은 무기력의 형상화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정신적 지향의 회복을 암시한다.
- ④ '칼과 황금에 제사지낸다'는 표현은 초월적 이념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물질적·권력적 위선을 고발하는 것이다.
- ⑤ 시 속 '당신'은 개인적 연인이 아니라 자유, 정의, 깨달음 등으로 읽히는 상징적 대상이며, 시대적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74번

정답: ④

■ 정답 풀이

④ (가)와 (나)는 구체적 제도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는다.

- (가)는 시대적 억압을 고발하고 ‘당신’이라는 상징을 통한 정신적 초월을 시도한다.
- (나)는 민족 해방의 그날을 상상하며 감정적 고양과 희생의 의지를 강조한다.

→ 두 시 모두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을 염원하지만, 제도 개혁이라는 직설적 서술은 부재하다.

따라서 이 선지는 <보기>의 설명과 시 작품의 실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칼과 황금을 제사지낸다’는 구절은 현실 질서의 위선을 비판하며, 불교적 세계관과 독립운동의 맥락이 함께 드러난다.

② 삼각산이 춤추는 장면은 비현실적 상상을 통한 현실 초극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낭만주의 서정의 예다.

③ ‘불사조’와 ‘눈물’은 비애를 심미적으로 승화한 것으로, 정지용 시의 상징성과 심미성을 잘 보여준다.

⑤ (다)는 시대 배경을 직접 드러내지 않지만, 개인 내면의 고통과 재생을 형상화함으로써 <보기>의 평가에 부합한다.

문학 빠른 정답

④	④	④	③	①
⑤	③	③	③	③
③	①	③	③	⑤
①	⑤	③	④	②
④	②	④		

